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4 Q
2020
vol.21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벤처투자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해외 VC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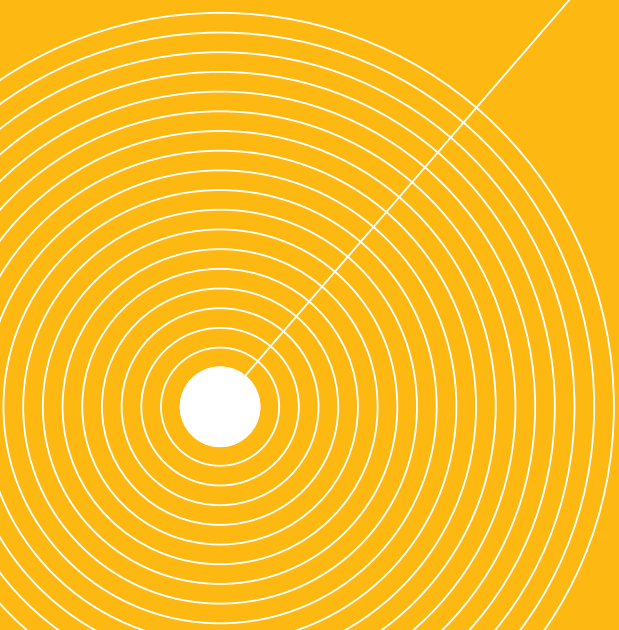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4Q 2020 VOL. 21

- 04 <—————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 18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 36 <—————  **벤처투자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 48 <—————  **해외 VC
시장 동향**
- 76 <—————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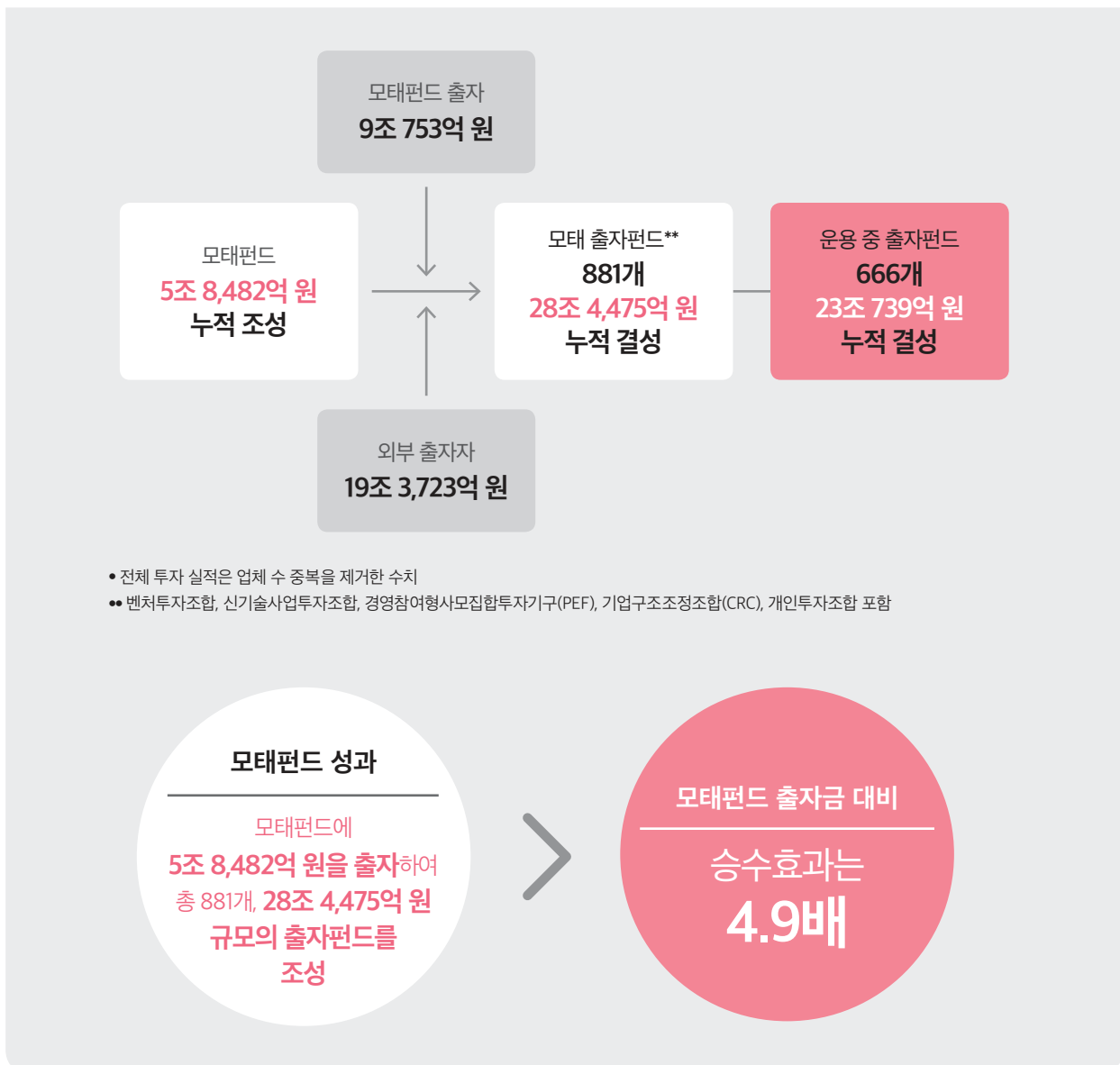
결성 /
투자 /
회수 동향 /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4분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모태펀드 개요

2020년 12월 말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5조 8,482억 원이며, 19조 3,723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8조 4,475억 원 규모, 총 881개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666개, 23조 739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881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7,333개사*에 총 21조 4,03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모태 출자펀드 결성

♣ 2020년 4분기 모태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0년 10~12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42개, 1조 4,991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GP:케이비인베스트먼트)'로 2,000억 원 규모이다.

표 1 2020년 4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M&A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벤처투자조합	하나벤처스	650	260	10.13
중진	소셜임팩트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 II	벤처투자조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100	60	10.25
중진	소셜임팩트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2호	벤처투자조합	비하이인베스트먼트	300	120	11.19
중진	여성기업	에이벤처스 W 유니콘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에이벤처스	246	120	11.9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2020토니비대면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토니인베스트먼트	125	50	11.9
중진	사회적기업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임팩트스퀘어	58	40	11.9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신세계시그나이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시그나이트파트너스	500	200	12.14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 코나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코나벤처파트너스	344	110	12.14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에스비파트너스	142	50	12.16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크릿1호펀드	벤처투자조합	크릿벤처스	125	50	12.16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 크래프톤-본엔젤스 펀드	벤처투자조합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220	80	12.17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200	80	12.23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바이오펀드	벤처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240	95	12.24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엘앤에스-제이와이피 스마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200	80	12.24
중진	그린뉴딜	스마트 수소경제 및 E-신산업 BSK 10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485	150	12.8
중진	스케일업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	벤처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000	500	12.29

출처 한국벤처투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뉴딜 소방산업펀드 5호	벤처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185	120	12.29
중진	멘토기업 매칭출자	스마트 엘앤피-스파크랩 코스메틱 제1호 펀드	벤처투자조합	스파크랩	125	50	12.30
지방	규제샌드박스	FMC 제1호 Sand Box 지역특구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100	60	10.5
지방	규제자유특구	경남 리버사이노베이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경남벤처투자	200	120	12.16
엔젤	대학창업	BS 다이나믹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50	30	11.23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인터베스트 창업초기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인터베스트	320	150	10.6
혁신모험	창업초기 루키	인사이트V2 디지털헬스케어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200	100	10.19
혁신모험	혁신성장	미래에셋 Innovative Growth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미래에셋벤처투자	751	190	11.12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제2호	벤처투자조합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750	200	11.3
혁신모험	혁신성장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2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프리미어파트너스	900	160	11.18
혁신모험	창업초기 루키	인라이트9호 넥스트유니콘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인라이트벤처스	220	125	11.9
혁신모험	창업초기	지스트롱(G-STRONG) 창업혁신펀드	개인투자조합	시리즈벤처스유한책임회사	50	30	11.26
혁신모험	혁신성장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스톤브릿지벤처스	1,080	220	12.2
혁신모험	혁신성장	SLiNext 이노베이션 펀드	벤처투자조합	에스엘인베스트먼트	750	220	12.9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케이넷 유니콘 육성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넷투자파트너스	599	175	11.4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네오플렉스	199	100	12.30
문화	모험콘텐츠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벤처투자조합	라구나인베스트먼트	159	75	10.25
문화	해외연계	ISU-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	벤처투자조합	이수창업투자	152	90	11.4
문화	콘텐츠IP	유니온슈퍼아이피2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60	150	11.9
스포츠	스포츠산업 육성	에이티유스포츠테크1호창업벤처전문 사무투자합자회사	PEF	에이티유파트너스	51	30	10.28
스포츠	스포츠산업 육성	인피니툼스포츠1호펀드	벤처투자조합	인피니툼파트너스	143	100	12.24
과기정통	실감 콘텐츠	MIP디지털실감콘텐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메이플투자파트너스	205	140	11.9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505	50	12.16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인터밸류파트너스	370	32	12.17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비엔에이치4호기술금융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532	43	12.21
환경	미래환경산업	스마일게이트녹색성장2호펀드	벤처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00	100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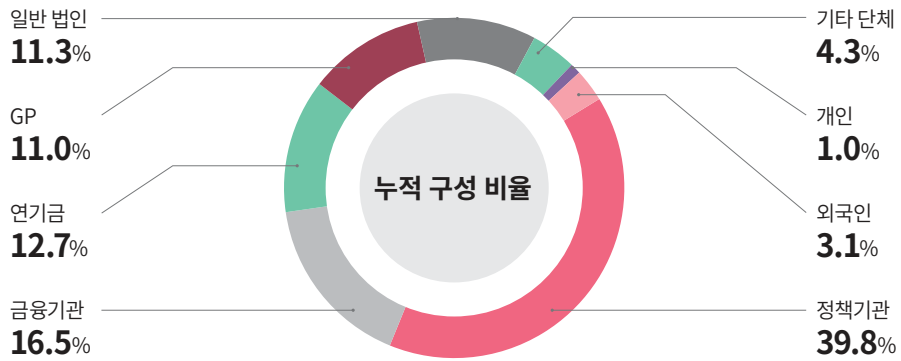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0년 12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1조 3,131억 원(39.8%)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4조 6,877억 원(16.5%), 연기금 3조 6,176억 원(12.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의 1조 5,21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이 (6,391억 원)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20.12	15,218	6,391	3,660	3,685	4,277	1,344	330	350	35,855
누적	113,131	46,877	36,176	31,385	32,237	12,258	2,896	8,914	284,475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자,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 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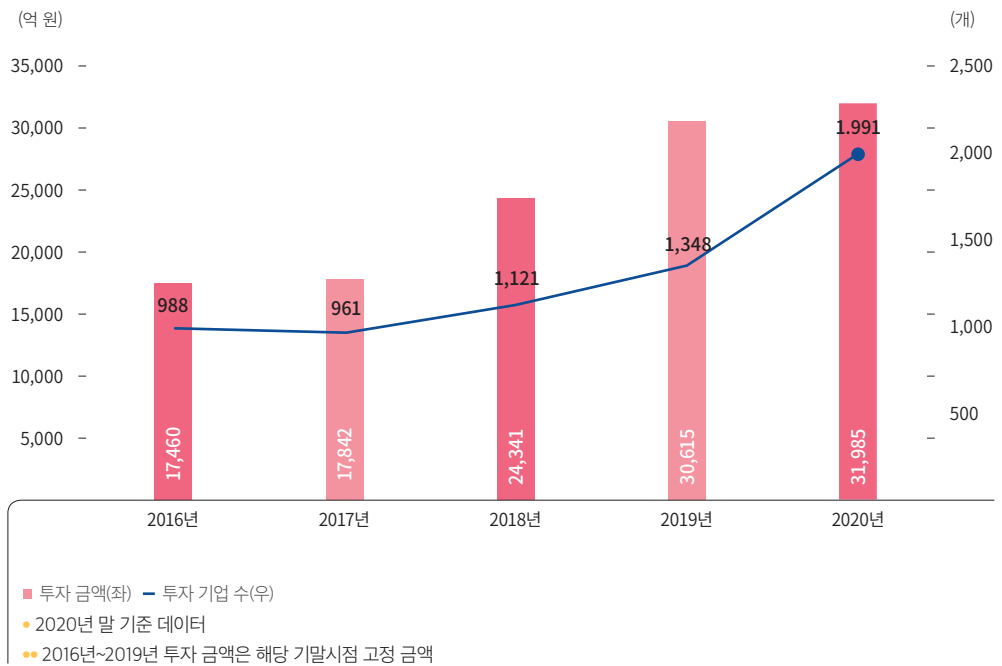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투자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0년 내 357개 모태 출자펀드가 1,991개 기업에 총 3조 1,985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4.5%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47.7% 증가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누적 투자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투자 금액 상위 기업

2020년 동안,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1.5개 펀드가 16.1억 원을 투자하였다. 주로 ICT서비스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기업이 투자 금액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 금액은 241억 원을 기록했다. PEF의 경우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PEF로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받은 기업이 3개가 포함되었다.

표 3 2020년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 금액
1	왓차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10	317
2	○○○○○	바이오/의료	의료시설/서비스	1	283
3	인바이츠헬스케어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1	280
4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1	280
5	그리드위즈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3	270
6	○○○○○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1	220
7	○○○○○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1	200
8	○○○○○	기타	금융	1	195
9	타우피엔유메디칼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10	188
10	메가존클라우드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7	180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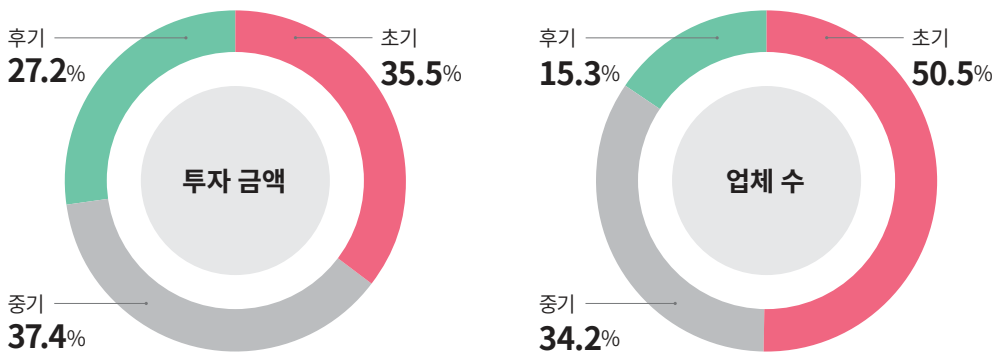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 업력별 신규 투자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1조 1,341억 원(35.5%),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1조 1,956억 원(37.4%),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8,687억 원(27.2%)이 투자되었다. 반면, 업체 수* 기준으로 업력별 신규 투자를 살펴보면 초기기업 1,016개사(50.5%), 중기기업 688개사(34.2%), 후기기업 307개사(15.3%) 순이다.

전년 대비 후기기업 투자의 경우에는 업체 수('19년 304개사)나 투자 금액('19년 8,789억 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초기기업 투자나 중기기업 투자는 투자 금액 대비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기업 투자업체 수는 '19년 610개사 대비 66.7% 늘어난 반면, 투자 금액은 10.9% 증가에 그쳤고, 중기기업 투자업체 수 또한 '19년 469개사 대비 46.7% 늘어난 반면, 투자 금액은 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초기기업이나 중기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기업 당 투자 금액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4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99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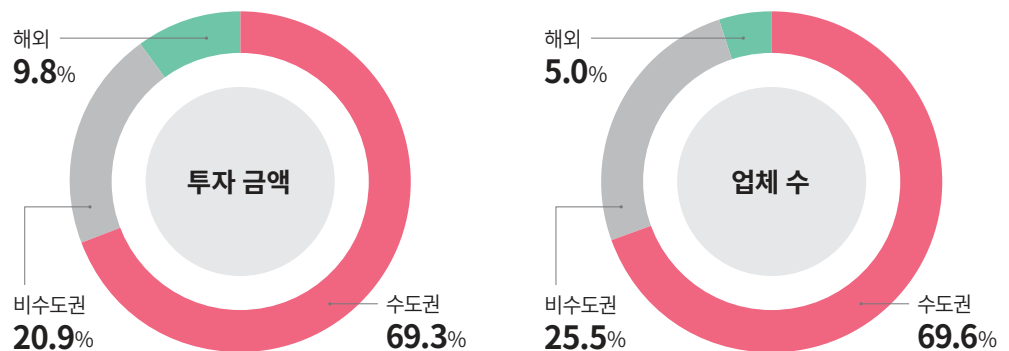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2조 2,165억 원(69.6%)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6,675억 원(20.9%),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3,144억 원(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기업 투자가 1조 5,45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경기 소재 기업 투자 5,805억 원, 해외 소재 기업 투자 3,144억 원 순이다.

서울의 경우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1조 6,275억 원) 5% 감소하였으나 투자기업 수는 오히려 244개사로 증가하였다. 수도권 내 인천 및 경기지역 또한 투자 금액 대비 투자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도권의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3.3%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436개사 늘어난 1,385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5대 광역시는 '20년 기준 투자 금액은 3,477억 원, 투자기업 수는 257개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투자 금액이 1,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 금액은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타 지방은 전체 지역 내에서 투자 금액 기준 10% 미만을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투자 금액은 최근 '16년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년 기준 투자 금액은 3,198억 원, 투자기업수는 250개를 기록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지방 내에서 경북지역이 58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기업 또한 49개사로 지방 내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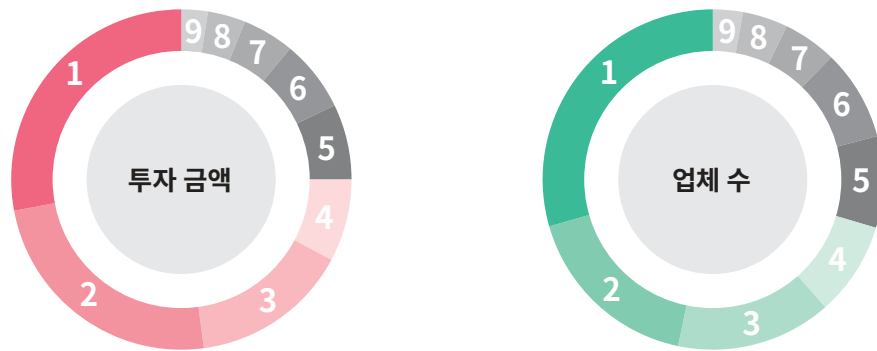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99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구분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5대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8,922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CT서비스 업종 7,735억 원(24.2%), 유통/서비스 4,815억 원(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서비스(29.4%), 유통/서비스(17.3%), 바이오/의료(14.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기업당 투자 금액은 바이오/의료가 28.3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5년('16~'20)의 업종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및 ICT서비스는 항상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각 연도별 투자 금액 기준 상위 두 업종의 비중은 점점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16년 39.1% → '20년 52.2%), 이는 신규 투자에 있어서 ICT서비스 기업 및 바이오/의료 기업으로의 투자집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바이오/의료	27.9
2	ICT서비스	24.2
3	유통/서비스	15.1
4	기타	7.8
5	영상/공연/음반	7.2
6	전기/기계/장비	6.8
7	화학/소재	4.9
8	ICT제조	3.6
9	게임	2.5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9.4
2	유통/서비스	17.3
3	바이오/의료	14.8
4	영상/공연/음반	8.9
5	기타	8.7
6	전기/기계/장비	8.6
7	화학/소재	5.1
8	ICT제조	4.3
9	게임	2.9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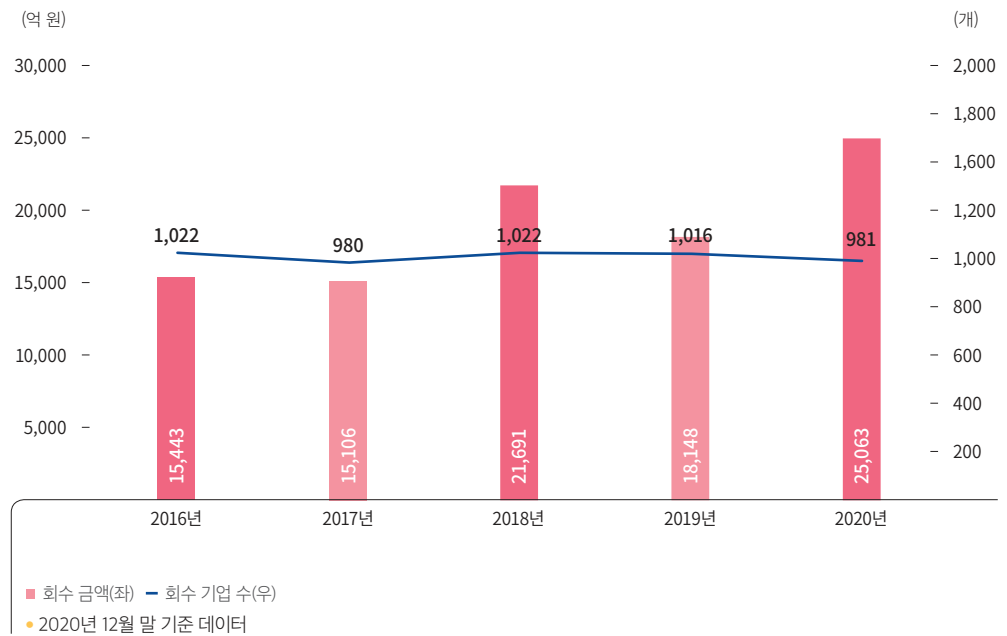
• 총 업체 수 1,99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모태 출자펀드 회수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0년 396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981개 기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 5,063억 원 (회수원금 1조 633억 원, 회수수익 1조 4,430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2.4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38.1%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3.4% 감소했다.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20년 누적 회수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회수 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0년 4분기 동안,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 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724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 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32.4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31.8%(2,869억 원), 의료기기 11.8%(1,069억 원), 소프트웨어 9.3%(842억 원), 전문서비스 8.3%(752억 원), 일반기계 7.3%(660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0년 4분기 동안 신규 상장한 기업은 17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 4분기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은 32개사이다.

표 4 2020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 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년월	상장년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지놈앤컴퍼니	코스닥	2015.9	2020.12	800	9,074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프리시전바이오	코스닥	2009.9	2020.12	188	3,654	체외진단 기기 및 시약
알체라	코스닥	2016.6	2020.12	200	3,476	얼굴인식 시, 이상상황 감지 시 등
인바이오	코스닥	1997.11	2020.12	95	1,230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엔젠바이오	코스닥	2015.10	2020.12	342	3,133	유전체 분야 진단시약 제조 및 유전체 분야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판매
퀀타매트릭스	코스닥	2010.11	2020.12	435	3,516	신속항균제검사 장비 및 키트
클리노믹스	코스닥	2011.07	2020.12	274	2,509	Geno Series, CD-PRIME, Cancer Prime
포인트모바일	코스닥	2006.11	2020.12	164	1,883	산업용 PDA
엔에프씨	코스닥	2012.4	2020.12	268	1,473	화장품 원료 제조 및 판매
하나기술	코스닥	2003.3	2020.11	280	2,943	이차전지 제조장비(조립공정장비 83.07%, PACK공정 장비 12.92% 등)
고바이오랩	코스닥	2014.8	2020.11	300	4,825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
위드텍	코스닥	2003.12	2020.10	265	2,093	AMCs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TMS
센코	코스닥	2004.11	2020.10	210	9,074	가스센서 및 모듈, 휴대용 및 고정형 가스검지기, 약취 &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미코바이오메드	코스닥	2009.3	2020.10	375	2,307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피플바이오	코스닥	2002.9	2020.10	100	1,288	올리고머화 베타-아밀로이드 검사제품(알츠하이머병 진단)
빅히트	코스피	2005.2	2020.10	9,626	87,323	음악 기획/제작, 퍼블리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넥스틴	코스닥	2010.6	2020.10	241	748	반도체 전공정용 패턴결함 검사장비(AEGIS 등)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표 5 2020년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상장 추진 현황

투자기업명	시장구분	기업 설립년월	진행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미코바이오메드	코스닥	2009.3	상장 승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비, 자동핵산추출장비 및 진단키트
씨엔투스성진	코스닥	2003.5	상장 승인	마스크, 필터
핑거	코스닥	2000.12	심사 승인	금융전문 포탈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와이더플래닛	코스닥	2010.7	심사 승인	모바일 광고
모비릭스	코스닥	2007.7	심사 승인	모바일 게임
뷰노	코스닥	2014.12	심사 승인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
엔비티	코스닥	2012.9	심사 승인	스마트폰 잠금화면 활용한 모바일 광고매체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스닥	2011.2	심사 승인	산업용 로봇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지스	코스닥	2015.6	심사 승인	바이오향약품
나노씨엠에스	코스닥	2003.4	심사 승인	보안물질용 Organic Phosphor
피엔에이치테크	코스닥	2009.8	심사 승인	OLED용 중간재료
오로스테크놀로지	코스닥	2003.10	심사 승인	광학오버레이측정장비 웨이퍼 검사장비
라이프시맨틱스	코스닥	2012.9	심사 승인	개인건강기록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 PHR 솔루션 구축, PHR 서비스 제공 등
자이언트스텝	코스닥	2008.6	심사 승인	광고제작
바이오다인	코스닥	1999.10	심사 중	액상세포검사 의료기기
애자일소다	코스닥	2015.4	심사 중	소프트웨어 소다시리즈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2007.10	심사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
래몽래인	코스닥	2007.3	심사 중	영화제작 및 드라마제작
디앤디파마텍	코스닥	2014.11	심사 중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시큐센	코스닥	2011.11	심사 중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등
아모센스	코스닥	2008.11	심사 중	모바일 기기 차폐 및 흡수시트, WPT
쓰리디팩토리	코스닥	2008.10	심사 중	스포츠 가상공간 및 무안경 3D 홀로그램 소프트웨어 외
삼영에스앤씨	코스닥	2000.6	심사 중	센서, 전기에너지저장소자
제노코	코스닥	2004.11	심사 중	위성통신/레이다, 전자전, 무인기 등
제주맥주	코스닥	2015.2	심사 중	크래프트 맥주 제조
엑소코바이오	코스닥	2017.1	심사 중	엑소좀 화장품 및 dermal filler
라운테크	코스닥	2000.3	심사 중	반도체/FPD/Solar용 진공로봇 및 EFEM, Backbone
씨앤씨인터내셔널	코스닥	2013.10	심사 중	색조화장품
딥노이드	코스닥	2008.2	심사 중	반도체 제어반장비
에이치피오	코스닥	2012.4	심사 중	유산균건강기능식품
진시스템	코스닥	2010.3	심사 중	신속 현장 PCR 장비
레몬헬스케어	코스닥	2017.6	심사 중	병원관리 소프트웨어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해당 보고서는
반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6월 말 기준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벤치마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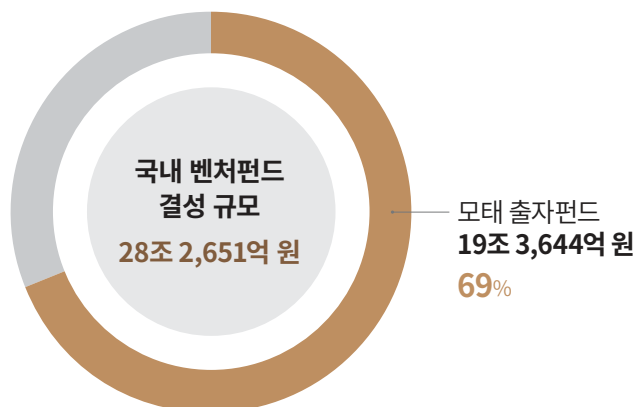
펀드 운용 성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성과를 비교 대상 자산의 성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벤치마크’란 펀드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성과 정보로 전체 시장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펀드 그룹의 성과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준수익률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만약 특정 기간의 펀드 수익률이 10%일 때,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20% 상승했다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상장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펀드 수익률이 -5%지만 상장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라면 펀드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

한국벤처투자의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우리나라 벤처펀드의 약 69%(2020년 6월 말 기준)에 대한 누적 성과 정보가 집계되어 있는 모태펀드 DB를 기반으로, 벤처펀드 성과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다.

그림 1 ____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펀드 결성 규모 대비 모태 출자펀드 규모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운용 중인 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구성

- ①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 ② PME 벤치마크(KOSPI / KOSDAQ 상장 시장과의 수익률 비교지표)
- ③ 펀드 결성 연도별 벤치마크
- ④ 펀드 결성 규모별 벤치마크

♣ 벤치마크의 활용

벤처펀드 수익성의 기준 지표가 되는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다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개별 벤처펀드와 운용사의 성과를 비교/평가
- ② 투자 목표 수익률, 자산구성 등 자산 배분 계획에 참고
- ③ 정책 자료 및 연구 목적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작성 프로세스

벤처마크 성과데이터는 각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가 제출하는 반기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 월간 보고 자료, 반기 펀드 투자자산 가치평가, 펀드 출자/배분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반기마다 산출한다.

* 성과보수 제외, 세전 기준

각 운용사 제출 자료는 제출 시점에 수시로 집계하여 DB에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오류를 재검증한다.

반기 가치평가 자료 반영으로 인해 벤치마크는 기준 시점에서 한 반기 시차(Time Lag)를 두고 발표한다. 벤치마크 발표 이후 펀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추가/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벤치마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다음 반기에 반영한다. 또한, 벤치마크 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제공정보 범위와 형태 등 구성 항목 역시 변동될 수 있다.

벤처마크 측정의 제한사항

펀드 투자자산 가치를 반기 주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성, 적시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펀드 결성 후 최초 2~3년 이내 시점은 벤처펀드의 특성(J-curve 효과*)상 의미 있는 수익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 J-Curve 효과 : 투자 수익이 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벤처 투자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표 1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14.28%	16.59%	12.54%	12.60%	10.48%	9.41%
(벤처지수)	15.37%	16.91%	13.22%	13.76%	11.71%	10.47%
(문화지수)	5.32%	14.06%	7.71%	5.42%	3.41%	2.86%

- 2019.7.1.~2020.06.30. 기간(1년)의 벤처펀드 수익률이 14.28%임을 의미한다.
- 전체기간 수익률은 모태펀드의 결성직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
- 문화지수는 모태펀드 문화, 영화, 과기정통계정에 속한 모태 출자펀드의 수익률이며, 나머지 계정은 벤처지수에 속함
(문화, 영화계정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로, 기업 지분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 벤처투자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함)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여 산출한 통합 수익률(Pooled IRR)이다. 또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펀드의 출자, 배분, 가치변동을 고려한 금액가중 연환산 수익률(end-to-end IRR)*을 반기별로 산출한다. (*[별첨1] 참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펀드의 현금흐름은 해당일자가 속한 분기의 중간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g. 2017.3.1. 펀드출자 → 2017.2.15. 펀드출자 / 2016.7.5. 수익배분 → 2016.8.15. 수익배분으로 가정)

기간수익률은 장기간의 벤처펀드 수익률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벤처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10년이므로,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수익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7년, 10년 기간의 수익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PME(Public Market Equivalent) 벤치마크

표 2 2020년 6월 말기준 PME벤치마크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0.48%	-3.51%	0.21%	1.24%	1.48%	2.17%
KOSDAQ PME (B)	8.21%	3.87%	1.07%	5.07%	4.39%	3.43%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14.28%	16.59%	12.54%	12.60%	10.48%	9.41%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14.76%	20.10%	12.33%	11.36%	9.00%	7.24%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6.07%	12.72%	11.47%	7.53%*	6.09%	5.98%

• 2019.7.1~2020.6.30. 기간(1년) 동안 벤처펀드에 출자/배분했던 동일금액을 동일시점에 KOSPI 지수에 투자/회수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0.48%임을 의미한다.

• 2013.7.1~2020.6.30. 기간(7년) 동안 벤처펀드가 코스닥시장 PME 대비 7.53%p의 초과수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PME 벤치마크는 벤처펀드의 현금흐름과 가치변동, 상장 주가지수의 등락을 반영한 것으로,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한 금액만큼 상장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KOSPI, KOSDAQ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과는 다르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표 3 2020년 6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투자수익률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Pooled IRR *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5.67%	17.80%	4.95%	0.58%	22.87%	-12.02%
2005년	13	4,810	-0.91%	3.36%	0.33%	-6.89%	16.17%	-25.27%
2006년	18	4,790	2.66%	4.71%	0.42%	-9.32%	37.30%	-16.80%
2007년	31	7,501	2.87%	4.99%	1.25%	-0.72%	34.26%	-28.57%
2008년	25	5,717	11.78%	9.64%	0.35%	-3.87%	61.94%	-17.60%
2009년	61	14,383	4.54%	6.46%	0.73%	-4.95%	42.71%	-23.26%
2010년	31	8,281	4.09%	10.25%	1.06%	-6.27%	23.94%	-28.65%
2011년	38	15,427	9.59%	10.55%	5.08%	-4.88%	60.98%	-15.22%
2012년	17	5,166	12.75%	16.73%	8.87%	2.63%	26.41%	-33.44%
2013년	41	13,142	16.06%	19.58%	10.98%	3.89%	42.40%	-11.68%
2014년	55	22,826	15.69%	18.55%	8.57%	5.07%	106.74%	-11.41%
2015년	60	18,124	10.91%	16.06%	8.48%	-1.09%	31.12%	-16.47%
2016년	69	23,214	17.47%	20.97%	10.17%	-1.00%	55.04%	-16.40%
2017년	98	34,402	12.04%	16.54%	8.43%	-0.79%	47.51%	-29.18%
2018년	83	29,724	10.75%	6.34%	-0.38%	-4.54%	NM	NM
2019년	94	27,037	-4.32%	-3.86%	-7.68%	-10.12%	NM	NM
~2020년 6월	33	8,393	-6.51%	-5.15%	-7.52%	-10.40%	NM	NM

- 2004년에 결성했던 모든 펀드의 2020년 6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5.67%임을 의미한다.
- NM : 투자 2~3년 이내 시점 최대/최소값은 극단치로 유의미하지 않음
- •• 상위/하위 25% IRR : 결성연도별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4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각 상위/하위 25%에 위치한 펀드의 수익률이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당시 결성한 전체펀드(Peer Group)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위치해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시장 전체를 고려한 펀드/운용사의 상대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2

표 4 2020년 6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투자배수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1.35	1.59	1.30	1.02	2.53	0.37
2005년	13	4,810	0.96	1.31	1.02	0.73	1.49	0.23
2006년	18	4,790	1.12	1.29	1.07	0.57	1.85	0.28
2007년	31	7,501	1.13	1.21	1.05	0.97	2.51	0.12
2008년	25	5,717	2.06	1.41	1.01	0.77	8.73	0.44
2009년	61	14,383	1.23	1.33	1.05	0.74	4.73	0.40
2010년	31	8,281	1.22	1.44	1.06	0.69	2.85	0.11
2011년	38	15,427	1.54	1.44	1.13	0.74	5.33	0.30
2012년	17	5,166	1.67	1.83	1.61	1.16	3.20	0.09
2013년	41	13,142	1.81	1.95	1.48	1.17	3.14	0.50
2014년	55	22,826	1.71	1.86	1.38	1.17	4.83	0.51
2015년	60	18,124	1.42	1.66	1.31	0.95	2.89	0.00
2016년	69	23,214	1.50	1.65	1.28	0.97	2.46	0.57
2017년	98	34,402	1.22	1.30	1.14	0.99	2.70	0.68
2018년	83	29,724	1.12	1.08	0.99	0.95	1.64	0.73
2019년	94	27,037	0.97	0.98	0.96	0.94	1.21	0.65
~2020년 6월	33	8,393	0.99	0.99	0.99	0.97	1.12	0.92

- 2004년에 결성하여 1원을 투자한 펀드들이 2020년 6월 말 현재 1.35원의 수익을 거둔 상태를 의미한다
- 상위/하위 25% 투자배수는 결성연도별 펀드들을 투자배수가 높은(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상위/하위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펀드의 투자배수이다(상위/하위 25% 이내 모든 펀드의 투자배수가 아니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3

표 5 2020년 6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TVPI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DPI	RVPI	TVPI
2004년	6	1,536	100.00%	1.35	0.00	1.35
2005년	13	4,810	94.66%	0.96	0.01	0.96
2006년	18	4,790	95.41%	1.12	0.00	1.12
2007년	31	7,501	92.37%	1.13	0.00	1.13
2008년	25	5,717	98.60%	1.53	0.53	2.06
2009년	61	14,383	93.77%	1.21	0.02	1.23
2010년	31	8,281	97.02%	1.14	0.08	1.22
2011년	38	15,427	93.95%	1.06	0.48	1.54
2012년	17	5,166	98.39%	1.18	0.49	1.67
2013년	41	13,142	97.25%	1.03	0.78	1.81
2014년	55	22,826	95.53%	0.72	0.99	1.71
2015년	60	18,124	95.95%	0.29	1.13	1.42
2016년	69	23,214	94.20%	0.35	1.14	1.50
2017년	98	34,402	89.22%	0.06	1.16	1.22
2018년	83	29,724	77.03%	0.02	1.10	1.12
2019년	94	27,037	42.71%	0.00	0.97	0.97
~2020년 6월	33	8,393	15.75%	0.00	0.99	0.99

- DPI (Distribution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타냄
- RVPI (Residual Value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펀드에 남은 잔여자산 가치를 나타냄
- TVPI (Total Value to Paid-In) : 납입액 대비 총 가치 (TVPI = DPI + RVPI)

결성연도별 벤처펀드의 총 DPI, RVPI, TVPI를 산출한다.

♣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표 6 2020년 6월 말 기준 결성규모별 투자수익률

펀드 결성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전체기간('05.6~'20.6)	773	244,474	83.83%	9.41%	12.37%	2.61%	-5.38%
1,000억 이상	44	62,200	83.10%	13.98%	20.34%	11.34%	1.78%
500억~1,000억 미만	93	58,849	84.17%	11.61%	12.21%	8.57%	0.29%
300억~500억 미만	135	47,216	84.67%	8.92%	15.38%	5.49%	-2.91%
200억~300억 미만	163	36,585	82.13%	6.95%	11.09%	1.06%	-6.93%
100억~200억 미만	283	36,838	86.20%	4.36%	7.70%	0.16%	-5.55%
100억 미만	55	2,786	69.62%	5.69%	12.10%	-1.03%	-8.06%

표 7 2020년 6월 말 기준 결성규모별 투자배수

펀드 결성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전체기간('05.6~'20.6)	773	244,474	83.83%	1.38	1.38	1.06	0.94
1,000억 이상	44	62,200	83.10%	1.52	1.75	1.38	1.02
500억~1,000억 미만	93	58,849	84.17%	1.45	1.38	1.18	1.01
300억~500억 미만	135	47,216	84.67%	1.32	1.40	1.16	0.98
200억~300억 미만	163	36,585	82.13%	1.29	1.30	1.02	0.92
100억~200억 미만	283	36,838	86.20%	1.19	1.33	1.01	0.92
100억 미만	55	2,786	69.62%	1.30	1.38	1.00	0.93

각 벤처펀드의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과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펀드 규모별로 구분한 4분위수, 중위값을 산출한다.

[참고] 벤치마크별 활용예시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활용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개별 펀드(운용사별/펀드별)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보상체계와 연계하거나,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위험관리 등 활용)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역사적 추이분석을 통해 벤처 투자시장 거시동향,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 및 연구목적 활용)
- 벤처펀드 출자/투자자가 벤처펀드 투자 수익과 위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Case 1.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하려고 할 때, 무위험자산 대비 국내 벤처펀드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과거 기간에 따른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비교하여, 국내 벤처펀드 투자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8.12%	7.78%	7.53%

Case 2. 벤처펀드를 위탁운용할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과거 펀드 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기간별 수익률을 참고하여, 각 운용사의 운용기간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률 지표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Case 3. 정책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을 활용하여 외국 벤처투자 시장이나 출자기관과의 수익률 비교가 가능하다.

• 활용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벤치마크 결과와는 다른 가상의 수치를 사용함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7.78%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美 벤처펀드 벤치마크 (기간수익률)	11.08%	8.03%	15.30%	9.04%

♣ PME 벤치마크 활용

- 상장시장과 벤처펀드 수익률의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PME의 수익률 차이로 상장시장 대비 벤처펀드의 초과수익을 가늠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시 상장 투자자산 대비 벤처펀드 투자 수익률의 목표수준을 가늠해보고 싶은 경우

→ PME 벤치마크는 국내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금액만큼 상장시장에 투자/회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시한다. PME 수익률* 정보를 통해 벤처펀드의 KOSPI / KOSDAQ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파악하고, 장단기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 PME의 계산은 [별첨2]의 설명 참조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9.60%	8.87%	4.54%	3.99%	6.19%	5.31%
KOSDAQ PME (B)	8.06%	7.24%	12.11%	6.76%	7.42%	6.75%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4.13%	7.52%	9.19%	8.12%	7.78%	7.53%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5.47%p	-1.35%p	4.65%p	4.13%p	1.59%p	2.22%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3.93%p	0.28%p	-2.92%p	1.36%p	0.36%p	0.78%p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특정시점에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 대비 분배가 진행된 정도, 결성연도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투자배수는 잔여자산이 현재 가치평가금액 수준으로 회수되어 분배 가능할 때, 투자금의 몇 배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향후 벤처펀드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수익을 파악 가능하다.
- 투자배수는 신속하고 쉽게 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투자를 비교해볼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성과평가 과정에서 각각 결성연도가 다른 2개 펀드(ex 2010년 / 2013년)의 수익률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할 때, 각 펀드가 해당 결성연도에 생긴 평균적인 벤처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결성연도별 벤치마크는 결성연도별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성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상위 25%, 중위값, 하위 25%, 최대값, 최소값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결성연도를 고려한 상대적 성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파악 가능하므로, 향후 잠재적인 회수가 가능 금액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의 경우 동일한 5%의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라 하더라도, 2010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2.20%, 2013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1.38%이기 때문에, 2010년에 5%를 달성한 펀드가 당시 시장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_____

결성연도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최대값	최소값
2010년	3.84%	9.57%	2.20%	-3.39%	22.58%	-32.87%
2013년	19.88%	23.23%	11.22%	1.34%	54.70%	-11.68%

결성연도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10년	1.18	1.31	1.06	0.80	2.53	0.04
2013년	1.65	1.69	1.38	1.04	3.32	0.59

♣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활용

- 펀드의 결성규모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출자를 기획과정에서, 출자규모에 따른 수익률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 결성규모별 벤치마크는 벤처펀드 결성규모별 수익성 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상위 25%, 중위값, 하위 25%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펀드 출자 예상 규모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로 살펴보면, 1,000억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은 12.56%로 100억~200억 미만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 3.94%보다 높으므로, 1,000억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펀드 결성규모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1,000억 이상	12.56%	20.91%	5.53%	-3.69%
100억~200억 미만	3.94%	7.73%	0.00%	-6.99%

펀드 결성규모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1,000억 이상	1.42	1.65	1.19	0.98
100억~200억 미만	1.16	1.26	1.00	0.89

벤치마크 산출시 주요 가정 및 정의

SI-IRR(Since-Inception Internal Rate of Return)

최초 펀드 납입시부터 측정 기준시점까지의 연간 수익률로써 최초펀드 납입액, 각 일자별 출자납입액 및 분배액, 미청산 보유자산의 기말 순자산가치 평가액(NAV)을 현금흐름으로 투입하여 계산한다.

Pooled IRR

포트폴리오 내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고, 각 시점에 발생한 펀드들의 모든 현금흐름 및 NAV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nd-to-end IRR

임의로 지정한 시작과 끝 두 시점 사이의 성과를 측정한다. 시작시점에서는 최초펀드 납입액 대신 기초 순자산가치 평가금액(NAV)을 납입액으로 대용한다.

결성연도

펀드의 법적성립연도이며, 펀드의 첫 번째 Closing, 혹은 첫 번째 Capital Call 시점과 같거나 그 이후이다.

투자배수(= TVPI, Total Value to Paid-In)

출자금 대비 누적 배분금 + 잔여가치 합의 비율로 펀드 전체 성과를 측정한다. (e.g. 수익배수 1.5 → 1을 투자해 0.5의 투자 초과수익을 거둠)

4분위수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4그룹으로 나눌 때, 그 기준값을 1~4분위수로 표시한다.

중위값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최대 / 최소값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최대 / 최소값이다.

[별첨 1] end-to-end Pooled IRR

end-to-end IRR :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출자하고 배분한 금액과 잔여 자산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NAV_s = \frac{CF_1}{(1+r)^{t_1}} + \frac{CF_2}{(1+r)^{t_2}} + \dots + \frac{CF_{i-1}}{(1+r)^{t_{i-1}}} + \frac{NAV_F}{(1+r)^T}$$

의 등식을 만족하는 r (할인율, %)

NAV_s : 시작점의 순자산가치

NAV_F : 끝점의 순자산가치

• NAV(Net Asset Value)=재무상태표상 순자산+투자자산 평가액-투자자산 장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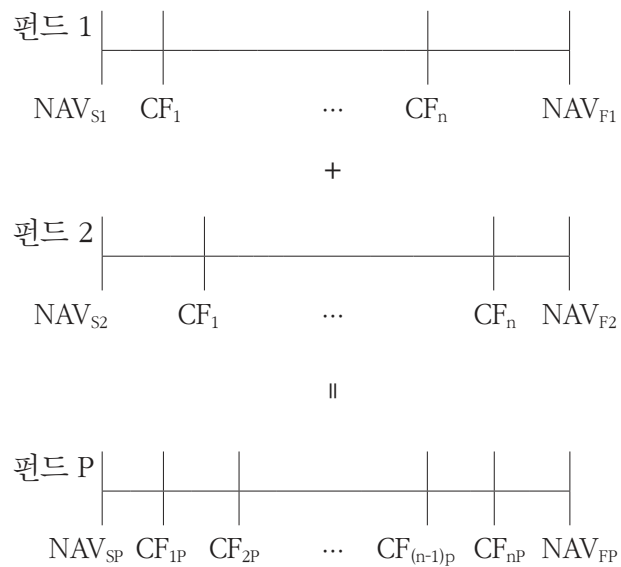
CF_i : i시점(t_i)에 발생한 (±)현금흐름

• NAV를 증가(자금 유입)시키는 현금흐름(중간배당, 원금분배)은 양의 값(+), NAV를 감소(자금 유출)시키는 현금흐름(출자금)은 음의 값(-)

t_i : CF_i가 발생한 시점

T :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기간

<Pooling : 펀드 1 Portfolio + 펀드 2 Portfolio + ... + => Portfolio pooled>



♣ e.g.) 국내 벤처펀드의 end-to-end Pooled IRR 계산(2017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의 경우)

→ **1단계** 2016. 12. 31. 및 2017. 12. 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가치평가 금액에서 기 배분액을 차감한 펀드 보유 잔여 자산의 가치(NAV)를 합산

- 2016. 12. 31. 및 2017. 12. 31. 시점의 모태 출자펀드 순자산 가치 총합(NAV) :
 Σ (2016. 12. 31. 및 2017. 12. 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평가액 - 기 배분액)

→ **2단계** 2017. 1. 1.~12. 31. 기간에 발생한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을 취합하여 분기별 기중현금흐름으로 변환

- 방법 | 2017. 1. 1.~3. 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2. 15.로 변환,
2017. 4. 1.~6. 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5. 15.로 변환,
2017. 7. 1.~9. 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8. 15.로 변환,
2017. 10. 1.~12. 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11. 15.로 변환함.
이 경우 1년 총 4번의 중간현금흐름이 발생
(1~3월→2. 15. / 4~6월→5. 15. / 7~9월→8. 15. / 10~12월→11. 15.)

→ **3단계** 위 4번의 현금흐름과 시작/종료 시점 NAV값을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산출 (2017. 1. 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17. 12. 31.에 기말 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NAV$ (at 2016. 12. 31.) \pm CF (at 2017. 2. 15.) \pm CF (at 2017. 5. 15.) \pm CF (at 2017. 8. 15.)
 \pm CF (at 2017. 11. 15.) + NAV (at 2017. 12. 31.)의 IRR 산출

[별첨 2] PME(Public Market Equivalent)

♣ e.g.) KOSPI PME 계산 (2017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의 경우)

→ 1단계 2017. 12. 31 기준 과거 1년간 KOSPI 지수 증가 변동률 계산

- 산식 | $((\text{KOSPI 지수(at 2017. 12. 31)} / \text{KOSPI 지수(at 2016. 12. 31.)} - 1) \times 100\%)$

→ 2단계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에서 계산한 2017. 1. 1.~2017. 12. 31. 기간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과 반기별 NAV, KOSPI 지수를 활용하여 시점별 배분금(DPME) 및 수정 NAV(mNAV) 산출

- 산식 | $DPME = \left(\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mNAV_i = \left(1 - \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DPME$: 수정배분금

D_i : i 시점에 발생한 배분금

NAV_i : i 시점의 순자산가치

$mNAV_i, mNAV_{i-1}$: $i, i-1$ 시점의 수정NAV

$KOSPI_i, KOSPI_{i-1}$: $i, i-1$ 시점의 KOSPI 지수 증가

C_i : i 시점의 출자금

→ 3단계 위 배분금과 출자금 합을 순현금흐름으로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값 산출 (2017. 1. 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17. 12. 31.에 기말 m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NAV \text{ (at 2016. 12. 31.)} \pm \text{Net CF (at 2017. 2. 15.)} \pm \text{Net CF (at 2017. 5. 15.)} \pm \text{Net CF (at 2017. 8. 15.)} \pm \text{Net CF (at 2017. 11. 15.)} + mNAV \text{ (at 2017. 12. 31.)}$ 의 IRR 산출

※ KOSDAQ PME 계산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나, KOSPI 지수 대신 KOSDAQ 지수로 산출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벤처투자 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중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특징을
분석해 반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06월 기준
모태출자펀드 가치평가 결과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비상장 기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펀드 투자 유니콘 현황 분석

♣ 들어가며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로 상상의 동물이다. 이런 상상의 동물의 명칭이 붙은 유니콘 기업이란 무엇일까? 유니콘 기업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카우보이 벤처스'의 창업자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가 집계하는 「The Global Unicorn Club」에 따르면 2021년 1월 26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527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는 1조 6,941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대한민국 기업은 11개로 쿠팡, 크래프톤(구 블루홀), 옐로모바일, 위메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무신사, 엘앤피코스메틱, GP클럽, 야놀자, 에이프로젠, 쏘카가 있다.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펀드 투자 기업 중 유니콘과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의 특징을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펀드의 2020년 6월 말 기준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 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며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및 그 후보 기업 56개사의 기업가치, 투자 금액, 업종, 업력, 매출액 분포를 분석했다. 기업가치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구간 :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집단,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금번 분석에는 유니콘 및 후보기업을 처음 분석한 18년도 반기 이후의 5개 시점 데이터의 추세 분석도 포함했다.

♣ 기업가치

지난 가치평가 기준일('19.12) 대비 2020년 6월 반기 기준 유니콘 및 그 후보 기업의 개수가 20개 증가해(21개 신규진입, 1개 제외) 총 56개 기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분석을 최초로 시작한 '18년도 반기 기준 평가대상 기업 수 28개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1조 원 이상 그룹은 '18년도 3개에서 7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9년도 온기 기준 평가대상 기업 수는 36건으로 직전 반기 대비 24%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20년 반기 기준에도 2천억 이상 5천억 미만 구간에 신규 20개 기업이 대거 편입되어 확장세를 이어나갔다.

기업가치 총 평균값은 5,824억 원, 중간값은 3,01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각각 13.5%, 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2천억 이상 3천억 미만 구간에 직전 반기 대비 13개 기업이 신규 편입된 것에 기인한다. 최초 평가 시점인 18년도 반기 기준과 비교시에도 기업가치 평균값은 18.9%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5천억 원 미만 구간에 신규 기업이 편입된 것에 기인한다.

분류 구간별 기업가치 평균값은 '18년도 최초 분석 이후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 편입이 지속되면서 모든 구간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8년도 최초 분석 시점과 비교시 1조 원 이상 그룹의 기업가치 평균값은 14.6% 감소, 5천억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 10.4% 감소, 2천억 이상 5천억 미만 그룹은 18.9% 감소하였다. 직전 반기 대비 '20년도 반기 기준 기업가치 평균값은 1조 원 이상 그룹이 2조 원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5천억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도 직전 반기와 유사한 약 7천억 원 수준을 보였다. 한편 2천억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은 신규 편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전 반기 대비 평균 기업가치가 3.2% 하락한 2천 8백억 원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2020년 6월말 기준 기업가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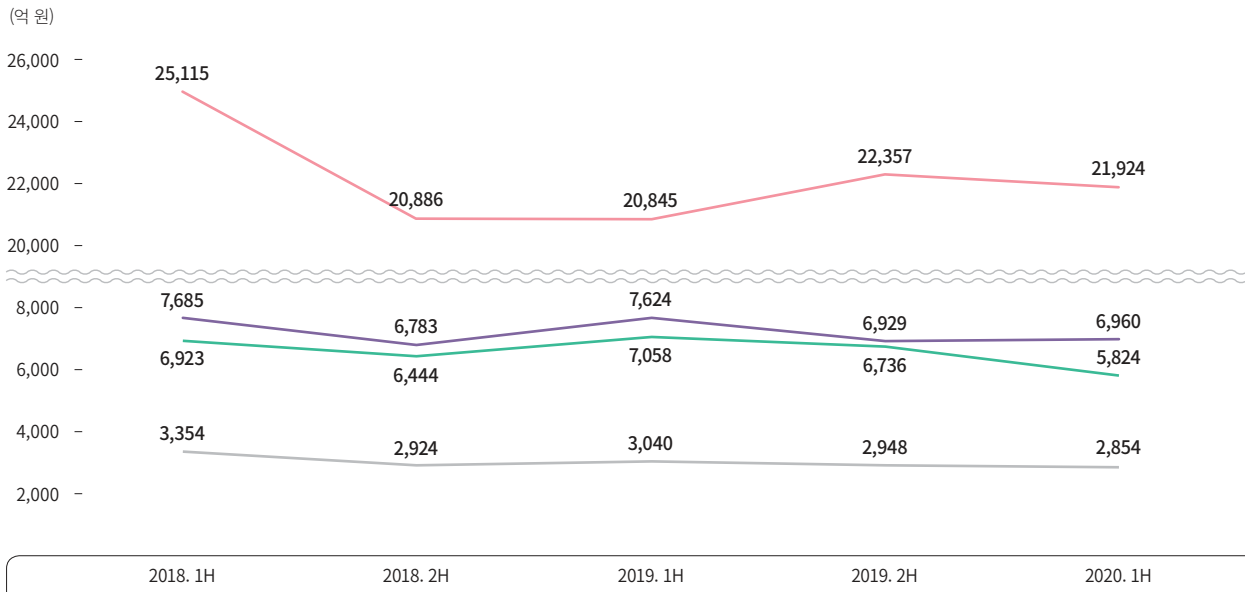
(단위 : 개)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 2019년도 동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임)		
1조 원 이상	7(▲1)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8(▲3)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9천억 원~1조 원	0(-)
		8천억 원~9천억 원	3(▲2)
		7천억 원~8천억 원	1(▼1)
		6천억 원~7천억 원	1(▲1)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41(▲16)	5천억 원~6천억 원	3(▲1)
		4천억 원~5천억 원	3(▼1)
		3천억 원~4천억 원	10(▲5)
		2천억 원~3천억 원	28(▲12)
총계	56(▲20)		

출처 한국벤처투자

- 1조 원 이상 그룹에는 기존 5천억 원 미만 그룹에 속한 기업의 가치가 4배 이상 상승하면서 1개 기업이 재분류됨
- 5천억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는 기존에 5천억 이하에 속한 두 개 기업이 가치 상승으로 재분류되었고, 분석 대상이 아니었던 한 개 기업이 신규 편입됨
- 5천억 미만 그룹에서는 신규 분석대상 20개 기업이 편입되었으나 3개 기업이 가치 분석 분류 상향으로, 1개 기업이 기업가치 하락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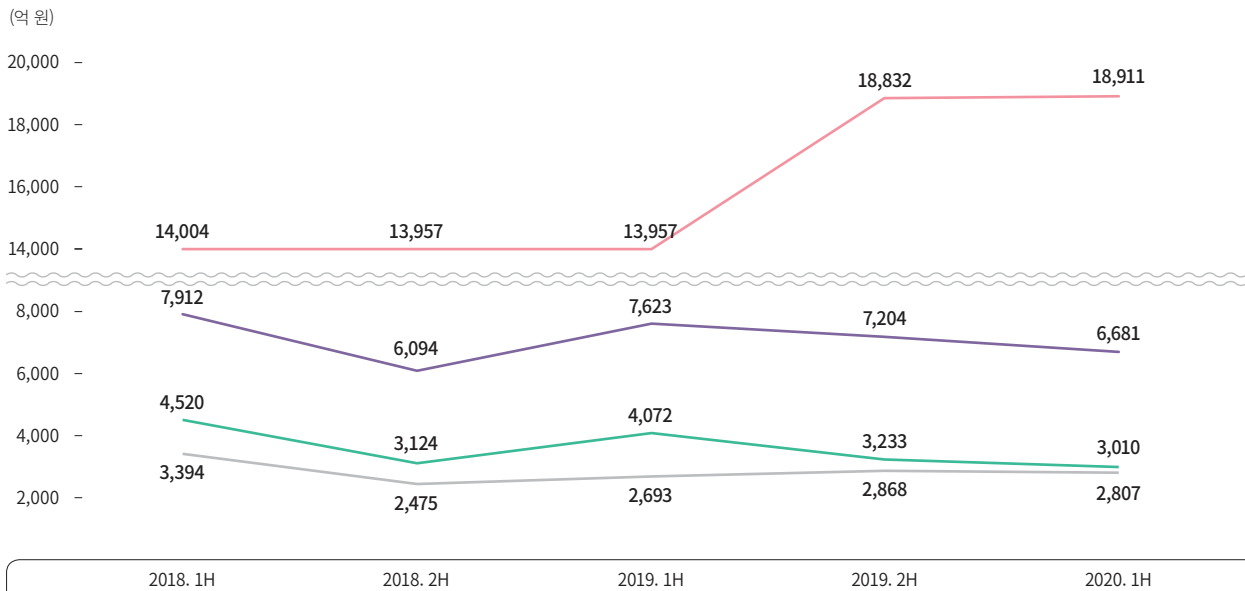
그림 1 기업가치 평균값 추이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우)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우) — 1조 원 이상 — 총 평균값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2 기업가치 중간값 추이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우)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우) — 1조 원 이상 — 총 평균값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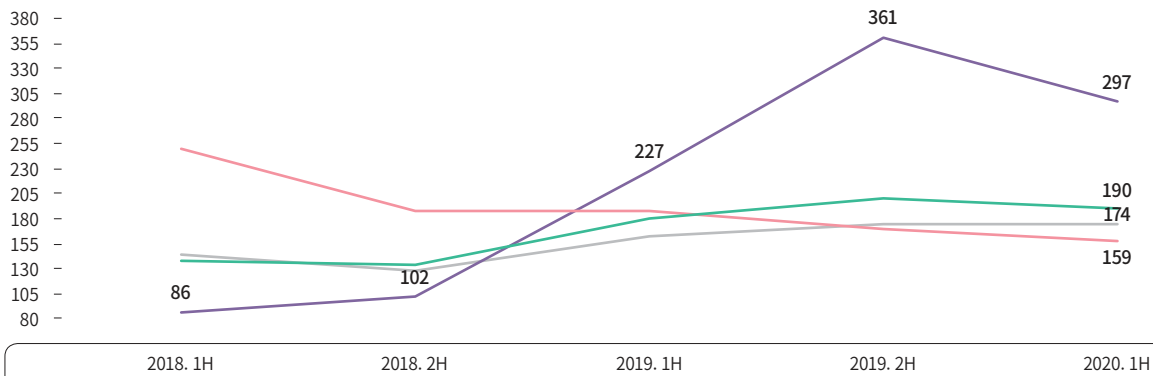
♣ 투자 금액

분석 대상인 56개 기업에 한국모태펀드 등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모펀드의 출자펀드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 총 1조 61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한 개 기업당 평균 약 190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투자 금액은 18년도 반기 기준 분석값 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이는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투자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18년도 분석 당시 평균 투자 금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1조 원 그룹으로 250억 원 수준을 보였으며,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 대비 2.9배 높았다. 그러나 이후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20년도 반기 기준 1조 원 이상 그룹 대비 1.9배 높은 297억 원이 평균적으로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 투자되었다. 1조 원 이상 그룹의 높은 기업가치 부담, 기업가치의 추가 상승 여력 등을 고려해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니콘 기업(1조 원 이상 그룹)과 예비 유니콘 기업(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투자금 평균 금액은 18년도 반기 당시 큰 차이를 보였으나,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에 투자가 확대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유니콘 및 유니콘 후보기업 투자금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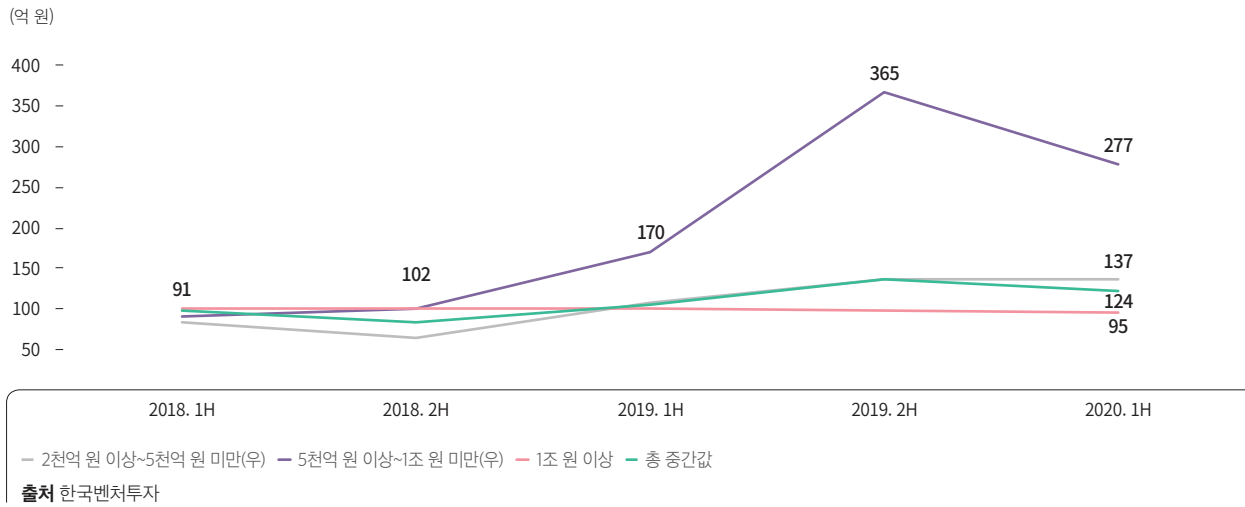
(억 원)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우)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우) — 1조 원 이상 — 총 평균값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4 유니콘 및 유니콘 후보기업 투자금 중간값 추이



♣ 업종

한국벤처투자 업종 분류(상세 내용은 본 기사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에 따라 투자기업을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로 분석한 결과, 유니콘 및 후보 기업이 가장 많이 탄생한 산업은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였다. 전체 56개 기업 중 ICT서비스 26개(46.4%), 바이오/의료 12개(21.4%), 유통/서비스 10개(17.9%) 기업이 동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3개의 산업이 85.7%를 차지하였다. 이 세 개의 업종은 18년도 에도 60%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9년도 이후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진입 기업 21개 중 9개가 ICT서비스 산업이었으며, 5개 기업이 바이오/의료 산업이었다. 그 외에도 유통/서비스 4개, 게임 2개, ICT제조에 1개 기업이 분포하고 있다. 산업 분류의 더 하위 분류인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17개, 정보서비스 분야에 9개 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분야에 6개, 의료기기 분야에 6개 기업 등이 분포해있다.

표 2 한국벤처투자 산업 분류 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산업 분류	기업 개수(▲지난 온기 대비 증가한 개수, ▼감소한 개수임)		
		세부분야 분류	기업 개수
ICT서비스	26(▲9)	소프트웨어	17(▲6)
		정보서비스	9(▲3)
바이오/의료	12(▲5)	의료용물질/의약품	6(▲2)
		의료기기	6(▲3)
유통/서비스	10(▲4)	도소매업	5(▲1)
		전문서비스	5(▲3)
게임	4(▲2)	게임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
ICT 제조	2(▲1)	반도체/전자부품	1(-)
		컴퓨터/주변장치	1(▲1)
기타	2(-)	부동산/임대	1(-)
		섬유/의복/가죽	1(-)
화학/소재	0(▼1)	화학물질/제품	0(▼1)
총 계		56(▲20)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6(▲6)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1(▲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1(▲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2)	자동차 임대업	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3(▲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경영 컨설팅업	2(▲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
화장품 및 화장품용도 소매업	1(-)	메모리용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	기타 전문 서비스업	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기억 장치 제조업	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	화장품 제조업	0(▼1)

출처 한국벤처투자

♣ 업력

분석 대상인 56개 기업들의 2020년 12월 말 현재 업력 평균은 8.9년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36개 분석기업 업력의 평균 값에서 대비 0.5년 증가했다. 기업가치별로 1조 원 이상 기업의 업력 평균 10.5년,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은 11.0년,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기업은 8.3년이였다. 업력 최솟값은 2.5년, 최댓값은 23.6년으로 업력 구성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20년 12월 말 업력 현황

(단위 : 년)

기업가치 분류	업력 평균	업력 최댓값	업력 최솟값
	(▲ 지난 은기 분석값 대비 증가한 업력, ▼ 감소한 업력임)		
1조 원 이상	10.5(▲0.2)	13.9(▲0.5)	7.4(▲0.5)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1.0(▲1.9)	23.6(▲11.3)	2.5(▼3)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8.3(▲0.5)	20.7(▼2.4)	3.5(▲1.5)
전체	8.9(▲0.5)	23.6(▲0.5)	2.5(▲0.5)

출처 한국벤처투자

♣ 매출액

2019년 말 기준으로 각 사 회계정책에 따라 집계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56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101.9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의 2019년 말 기준 매출액 대비 16.6% 감소한 수치로 신규 편입된 기업 20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797억 원으로 기존 평균을 하회한 영향이다.(신규 편입 된 기업 중 두 개의 기업은 매출액이 0원이다.)

1조 원 이상 그룹은 신규 편입 1개 기업의 매출액이 2천억 원 수준으로 기존 평균을 하회해 직전 반기 분석 기준대비 평균액이 6% 하락하였고,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은 매출액이 높았던 세 개의 기업(평균 1,431억 원 수준)이 상위 기업가치 그룹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직전 반기 대비 14.0% 하락하였다.

최초 분석 시점 이후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의 매출액 평균값은 3년 간 연평균 20.1% 증가하였고, 1조 원 이상 그룹도 연평균 8.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은 매출액이 낮은 신규 기업이 편입됨에 따라 연평균 27.2% 하락하였다.

표 5 2019년 말 결산 매출액 평균

(단위: 억 원)

기업가치 분류	매출액 평균
1조 원 이상	3,429.8 (-6.0% HOH)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2,287.7 (0.3% HOH)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457.4(-14.0% HOH)
전체	1,101.9(-16.6% HOH)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표 6 2019년 말 결산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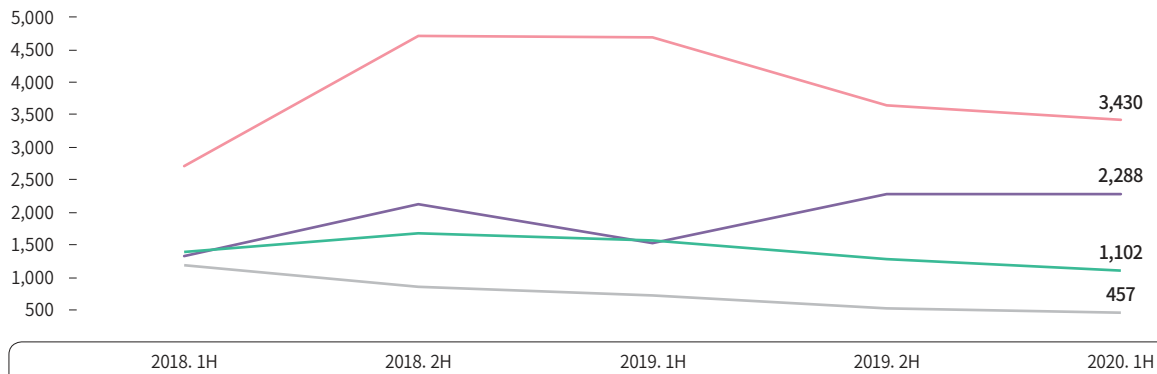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매출액 분류	기업 개수(▲ 지난 온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임)
1천억 원 이상	20(▲4)
5백억 원 이상~1천억 원 미만	2(▲1)
1백억 원 이상~5백억 원 미만	17(▲9)
1백억 원 미만	17(▲6)
전체	56(▲2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그림 5 매출액 평균값

(억 원)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우)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우) — 전체

출처 한국벤처투자

♣ 소고

이상 한국모태펀드 출자펀드 투자기업 중 '20년 6월말 기준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상장하지 않은 56개 국내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니콘과 후보군에 속한 평균적인 기업은 2020년 12월 말 기준 ICT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력 8.9년의 기업으로, 2019년에 1,102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으며, 한국벤처투자 출자펀드로부터 190억 원을 투자받아 5,824억 원의 기업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분석 시점인 18년도 반기 이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평가 대상 기업 수는 최초 28개 대비 두 배 상승하였고, 유니콘인 1조 원 이상 그룹에도 신규 편입이 지속되어 최초 3개 기업에서 7개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은 2천 억~3 천억 원 미만 구간에 신규 편입이 지속됨에 따라 총 기업가치 평균값은 18년도 반기 대비 18.9% 하락하였으며, 기업가치 구간별로도 평균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하락추세의 기업가치와 달리 매출액 평균값은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 1조 원 이상 그룹 모두 3년간 증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높은 기업가치를 뒷받침해주었다. 5천억 원 미만그룹은 신규 편입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평균 매출액은 3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투자 금액은 최초 분석값 대비 36.7% 증가하였고, 이는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투자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한편 유니콘 기업(1조 원 이상 그룹)과 예비 유니콘 기업(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 금액은 18년도 반기 당시 큰 차이를 보였으나, 5천억 원 미만 그룹에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세 개의 분야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상기 유니콘 기업 및 후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설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벤처투자 업종 분류 기준 소개

당사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9개 산업과 36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산업(9개)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기타

산업 내 세부 분야(36개)

의료용 물질/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 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일반기계, 운송 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 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 장비, 컴퓨터/주변 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표 7 한국벤처투자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 분류

(단위 : 억 원)

산업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	의료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산업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분야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산업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분야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산업	기타		
분야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기타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해외 VC

시장 동향 /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KPMG, PwC,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0년 운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0년 4분기)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2020년도는 투자 규모, 회수 규모, 결성 규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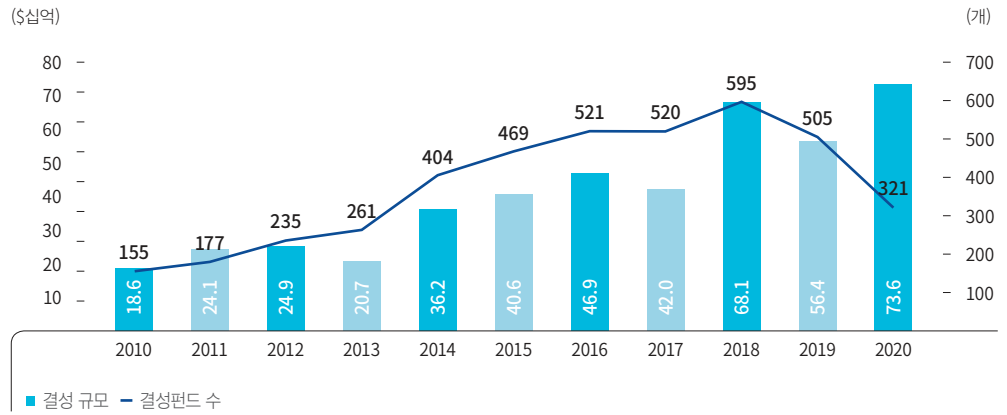
♣ 결성(Fundraising)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역대 최고 수치인 736억 달러 규모의 VC펀드가 미국에서 결성되었다. 저금리로 확대된 시장 유동성과 주식시장의 가치 상승에 따라 LP들이 비상장 투자에 자산배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VC 시장에 꾸준한 자금 유입이 가능했다. '19년도는 역대 최고 분배금액(522억 달러)을 보이며 LP들의 자산 배분 비중의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한 영향도 있었다.

소수의 대규모 펀드가 결성되는 추세는 작년에도 확인되었으나, '20년도에 그 추세가 더 강화되었다. 결성 규모가 작년 대비 30.4% 상승한 반면 결성 펀드 수는 321개로 36.4% 하락하였다. VC 시장 활성화로 사모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후기단계의 투자라운드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대형펀드 결성이 필요해졌고, 트레레코드가 쌓인 소수 VC들에게 LP들의 출자금 쏠리는 현상으로 소수의 메가 펀드(5억 달러 이상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다. 20년도 메가펀드는 44개가 결성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펀드 결성 규모의 중간값과 평균값도 각각 76백만 달러, 235.8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한편 신생 VC(펀드 결성 수 3개 이하)의 펀드 결성 수는 '20년 162개로 작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그림2 참고) 신생 VC가 아닌 펀드 결성 이력이 많은 VC들은 작년 대비 11.6% 소폭 감소한 159개 펀드를 '20년도에 결성하였으며, '20년도 전체 펀드 결성금액의 7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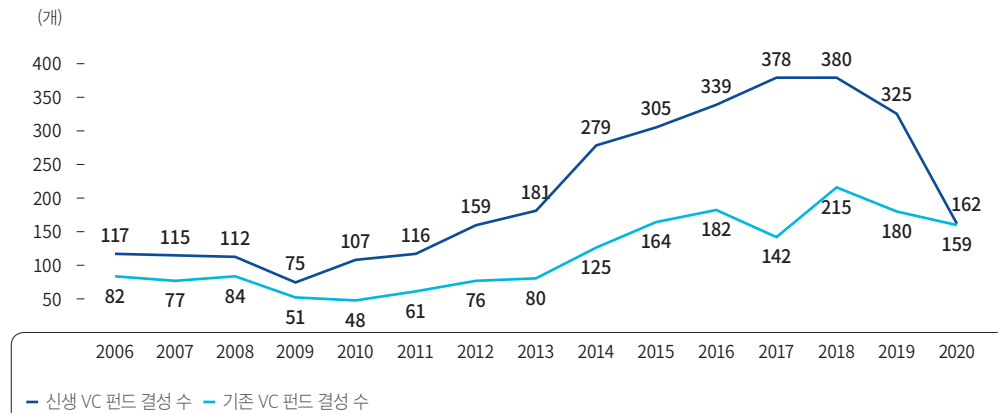
'21년도 초 현재 통계상 1,520억 달러의 미투자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21년도 결성 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년도 펀드 클로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2.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 13.1개월보다 오히려 감소해 코로나로 인해 결성이 지연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20년도 미국 VC 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이 미미했으며, '21년도에도 코로나 환경에서 미국 VC 시장은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규모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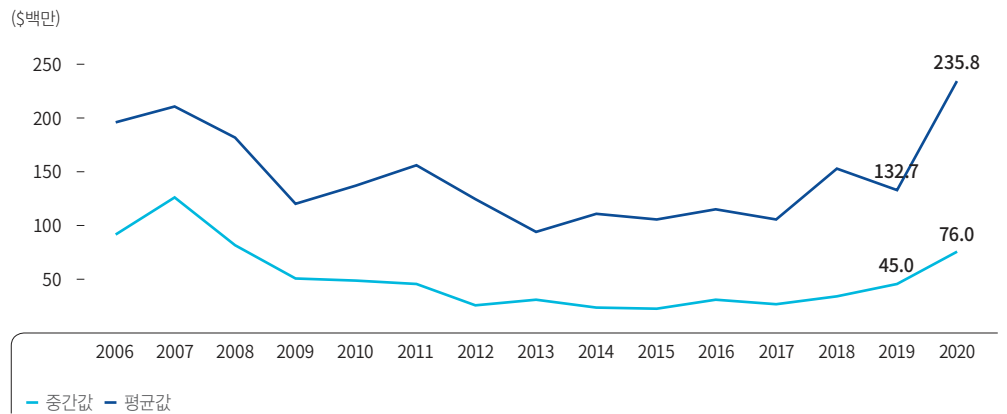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 미국 신생 VC와 기존 VC의 VC 펀드 결성 수 추세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3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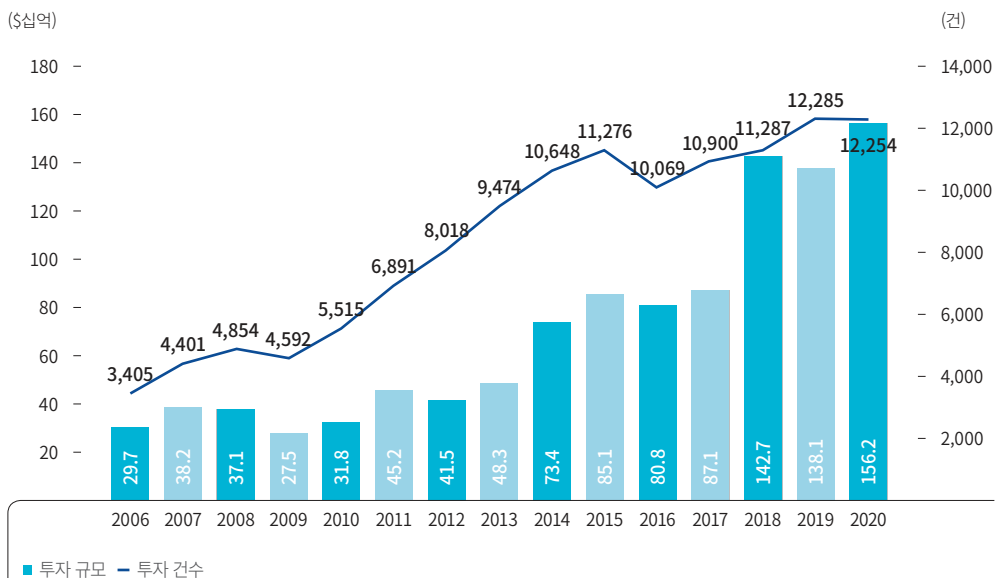
♣ 투자(Deal)

2020년 동안 12,254건의 1,562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후기단계에 대형 딜이 집중되는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엔젤/시드 단계, 초기단계 투자 금액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하락하였는데, 후기단계에는 작년대비 28.9% 높은 금액이 투자되면서 20년도 투자 금액 상승을 견인하였다.

후기단계 투자 비중이 높은 메가 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은 321건, 709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 전체 메가 딜 중 80.5%(265건)가 후기단계 투자 건이었다. 이러한 메가 딜이 미국 전체 VC 투자 금액의 45.4%를 차지하였다. 메가라운드 증가의 영향으로 후기단계의 기업가치(Pre-Money 기준, 이하 기업가치는 모두 Pre-Money 기준이다)는 다른 단계 대비 상당폭 증가하였다. 후기단계 기업가치 중간값은 작년 대비 18.3% 상승한 반면, 초기단계는 7.1% 상승하는 데 그쳤고, 엔젤/시드 단계는 하락하였다. 반면, 20년도 최초투자유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투자 건수 중 26.2%가 최초로 투자를 유치한 라운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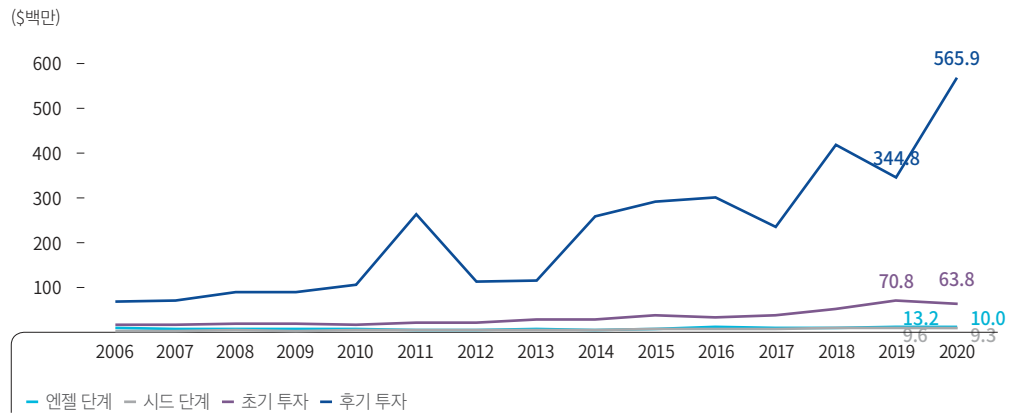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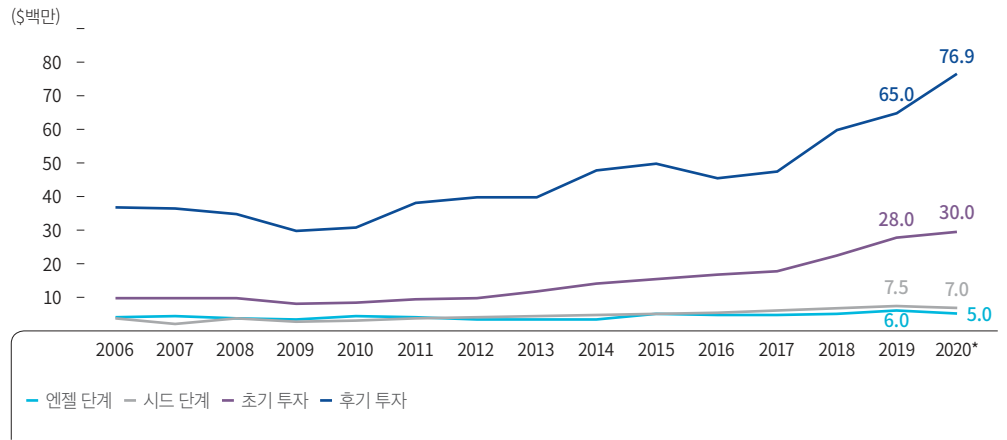
메가라운드 보다 낮은 규모의 투자 건들도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체 딜 건수의 14%를 차지하는 2천5백만 달러 이상 딜이 총 투자 규모의 76.2%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5.6%p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4 미국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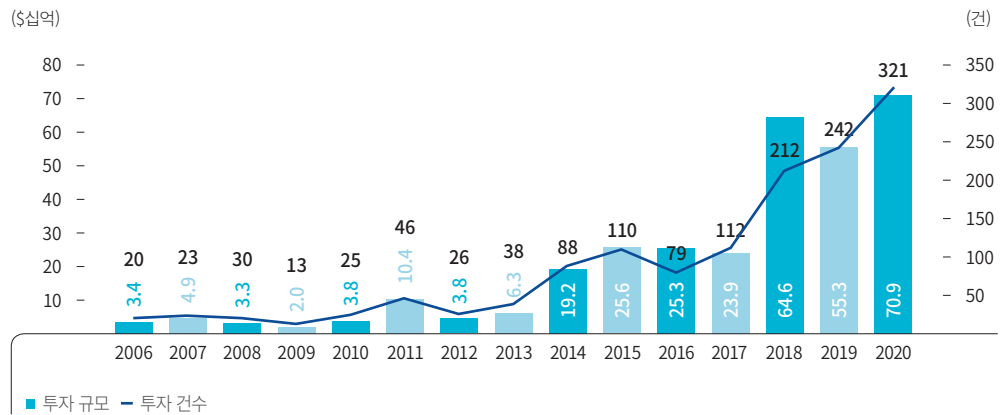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5 투자라운드별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상)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6 미국 메가 라운드(\$1억 달러 규모 이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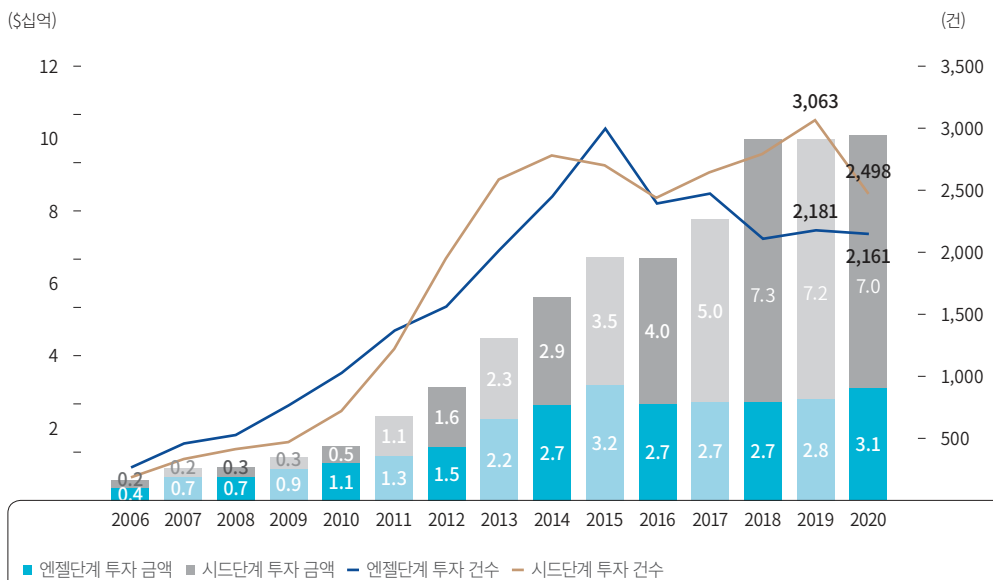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는 가시적인 재무적 성과나 완성된 서비스가 아닌 창업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투자자와 기업 간 교류가 필수적이다. 비대면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기업들은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엔젤/시드 단계는 19년도 투자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투자가 지속된다면 투자기업들은 접촉가능한 투자자 풀(pool)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유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여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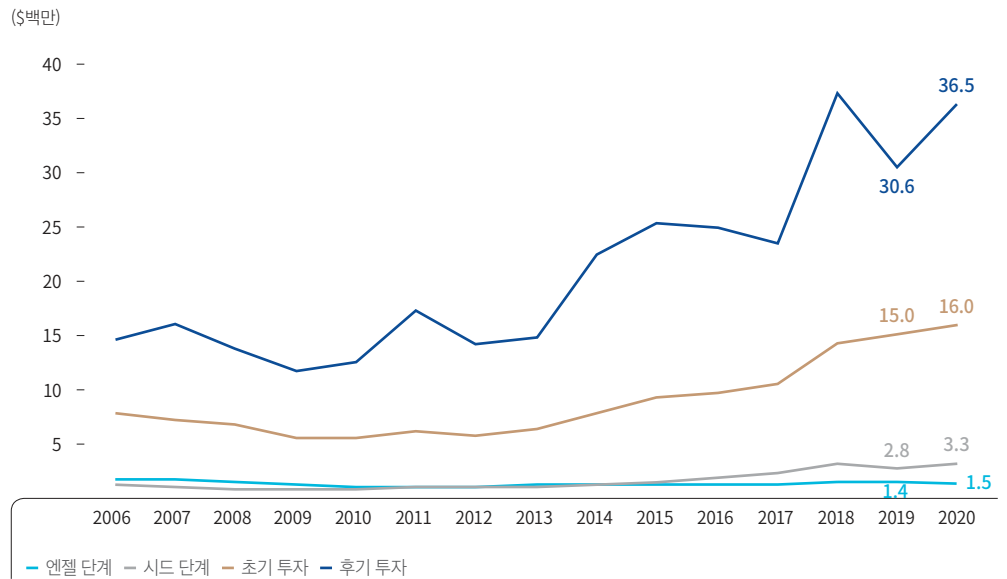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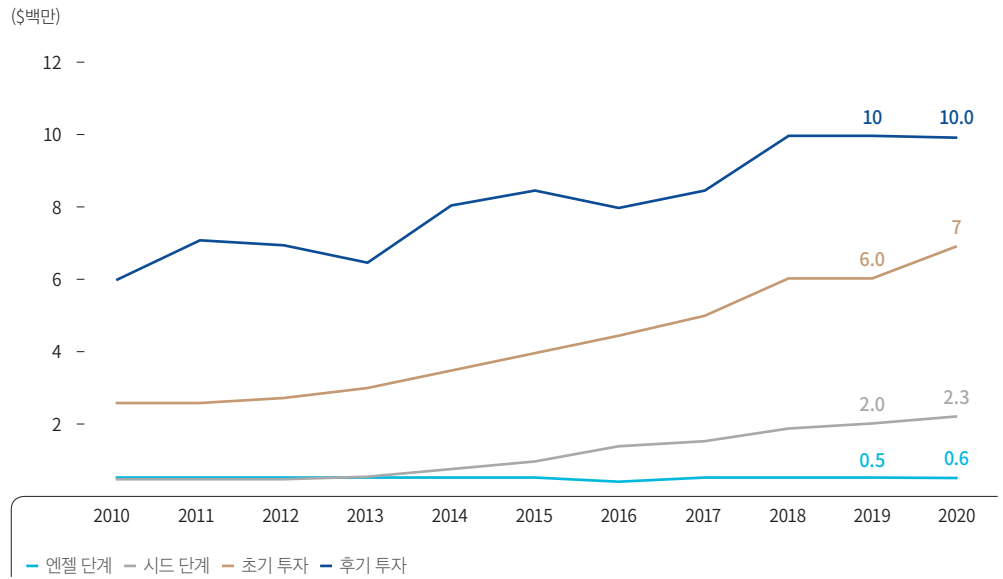
한편 2009년도 이후 처음으로 투자기업 기업가치 평균값이 하락한 반면, 딜 사이즈 평균값은 확대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환경 악화로 보상차원에서 더 많은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엔젤/시드 단계는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자원이 풍부해짐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는 시점도 늦춰졌고('12년도 1.2년→'20년도 2.6년) 기업가치도 상승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년도 기업가치 중간값은 작년대비 엔젤, 시드 단계 각각 16.7%, 6.7% 하락하였다.

그림 7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8 투자라운드별 투자 규모 중간값(상)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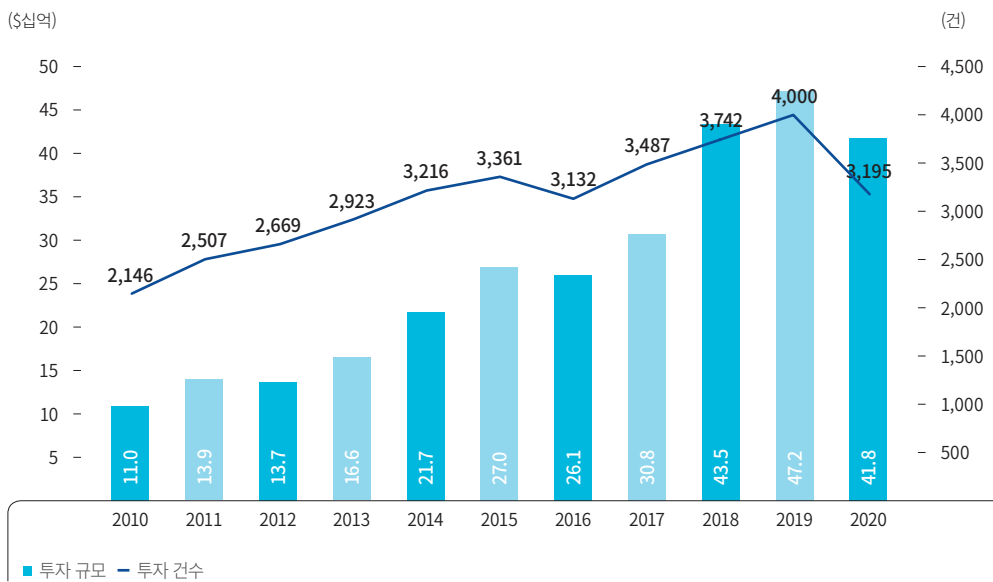
♣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20년도 2분기 초기단계 투자는 상승세가 강했던 '18년~'19년 분기별 평균 투자 금액 113억 달러 대비 21.3% 하락하며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3·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며 20년도 초기단계 총 투자 규모는 19년도 대비 11.4% 감소한 것에 그쳐 총 418억 달러가 연간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단계에서는 투자기업들이 'Blitzscaling 전략'을 사용하며 건당 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모습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2천5백만 달러 투자 건의 비중이 17.2%로 총 투자 금액의 65.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5년전 해당 규모의 투자 건이 총 투자 건의 7.6%, 총 투자 금액의 45.7%를 차지했던것과 대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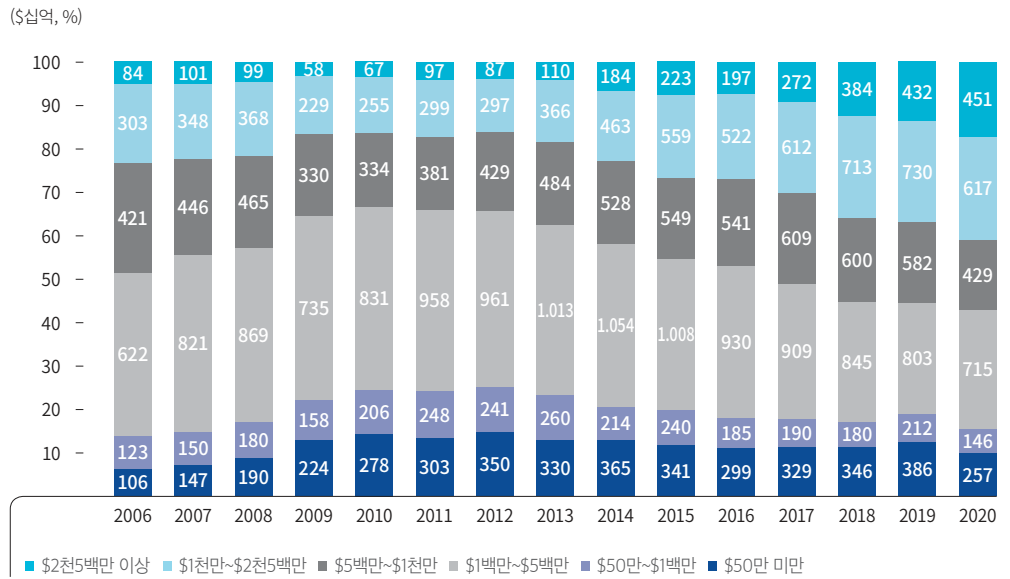
- 'blitz'(기습)+'scaling'(확장)의 합성어로 VC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은 단기 수익성을 신경쓰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기업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2015년도에 초기 단계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받은 기업 중 15%가 IPO에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2%의 성공률을 보였다.("Is bigger better? Early mega-rounds help startups on key targets" By James Thorne, December 12, 2019, PitchBook Data, Inc)

그림 9 미국 VC 초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0 초기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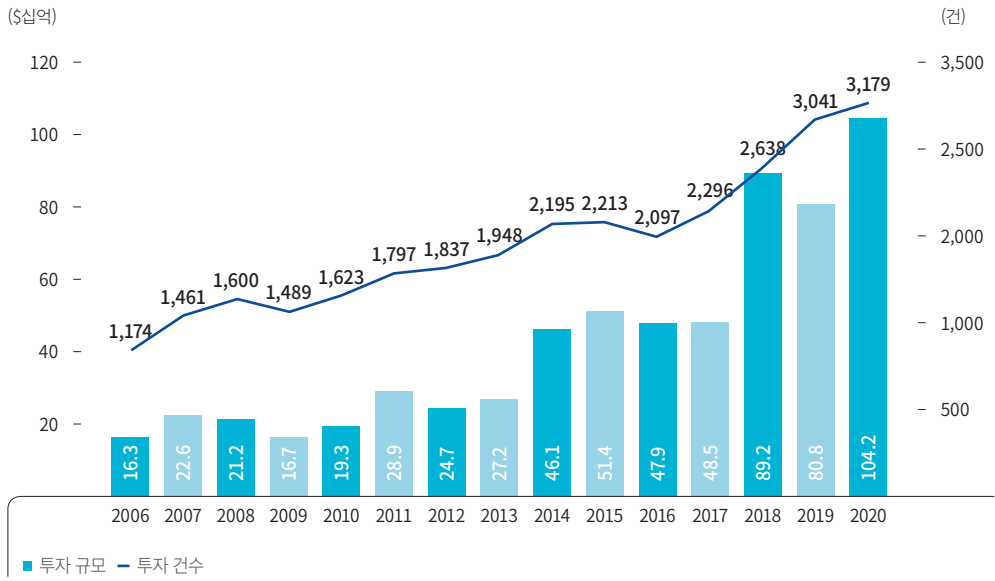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20년도 후기단계에는 메가 딜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8.9% 상승한 총 1,042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후기단계 메가 딜은 20년도 총 265건으로 전년 대비 47.2% 상승하였으며, 5년 전 대비 3.1배 증가하였다. 메가 딜은 주로 제약/바이오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되었다. 대표적인 메가딜로는 SpaceX, Stripe, Waymo, Robinhood, DoorDash, Samsara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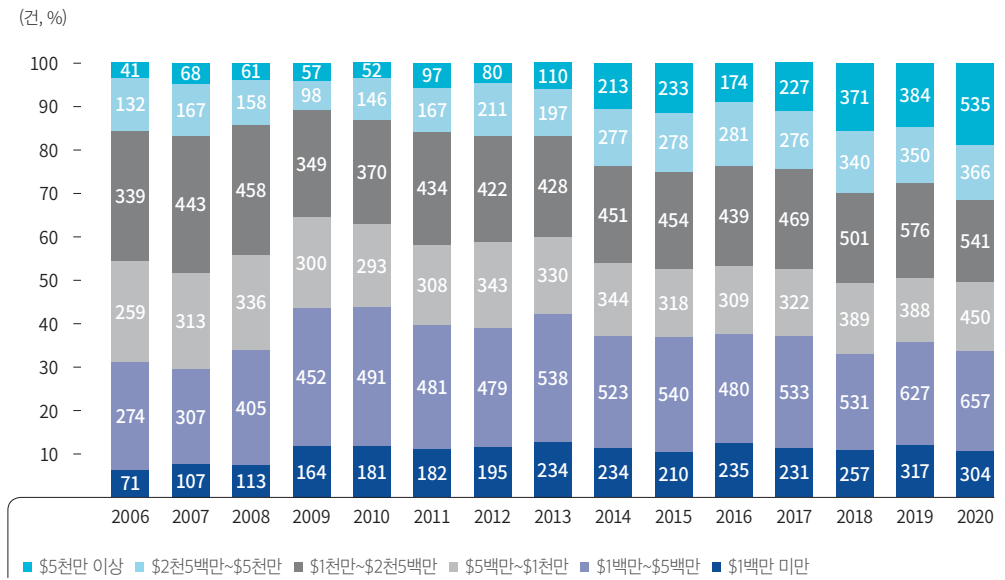
20년도 미국 VC 총 투자 건수의 28.8%를 차지하는 후기단계 투자가 미국 VC 시장 총 투자 금액의 66.7%를 차지하였다. 4분기 후기단계에서는 모빌리티 업종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Nuro와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는 TuSimple이 각각 시리즈 C 라운드에서 5억 달러, 시리즈 E 라운드에서 3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한 것이 있었다. 3D 프린팅 로켓을 개발하는 Relativity Space도 시리즈 D라운드에서 5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SPAC의 증가는 VC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짐에 따라 공모시장이 아닌 사모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들의 기조를 변화시켜 향후 후기단계의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1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2 미국 VC 후기 단계별 투자 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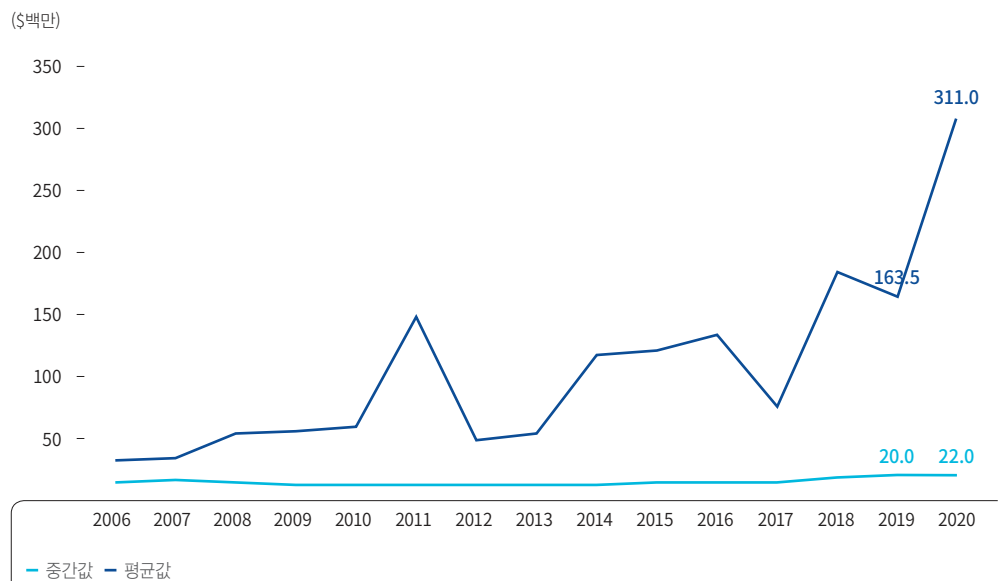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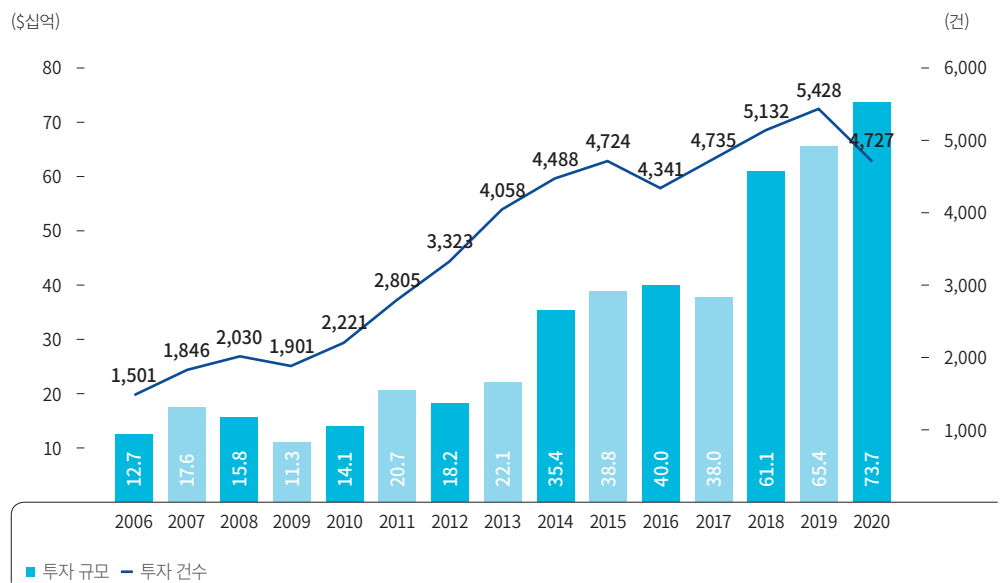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분야별 투자 현황

2020년 한 해 동안 B2B 테크 분야에 4,727건의 737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총 투자 금액은 작년의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평균 기업가치는 311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1.9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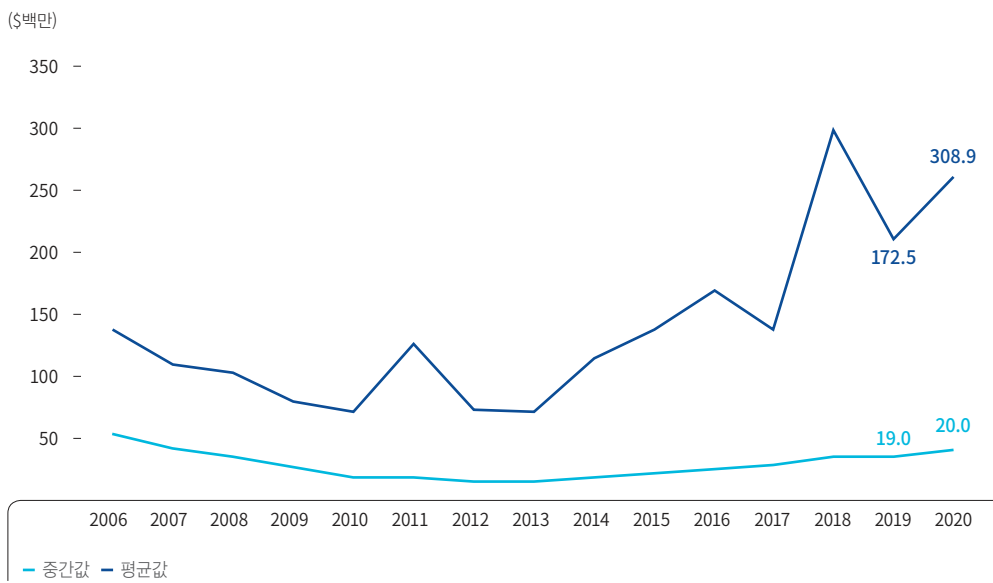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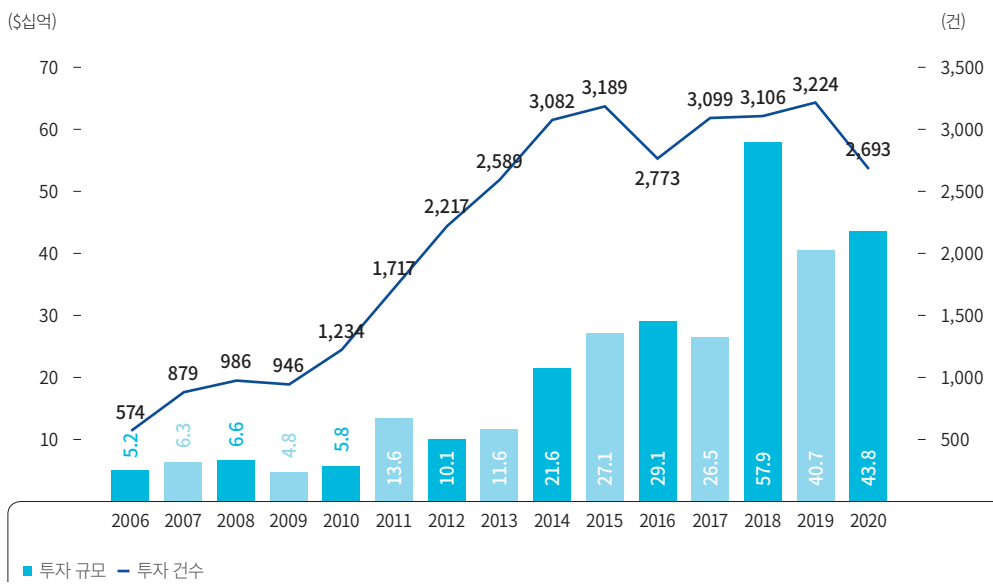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B2B 테크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B2C 테크 분야에는 2,693건의 43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B2C 테크 분야 투자 금액은 B2B 테크 분야의 59% 수준으로 B2C보다 B2B 투자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308.9백만 달러로 B2B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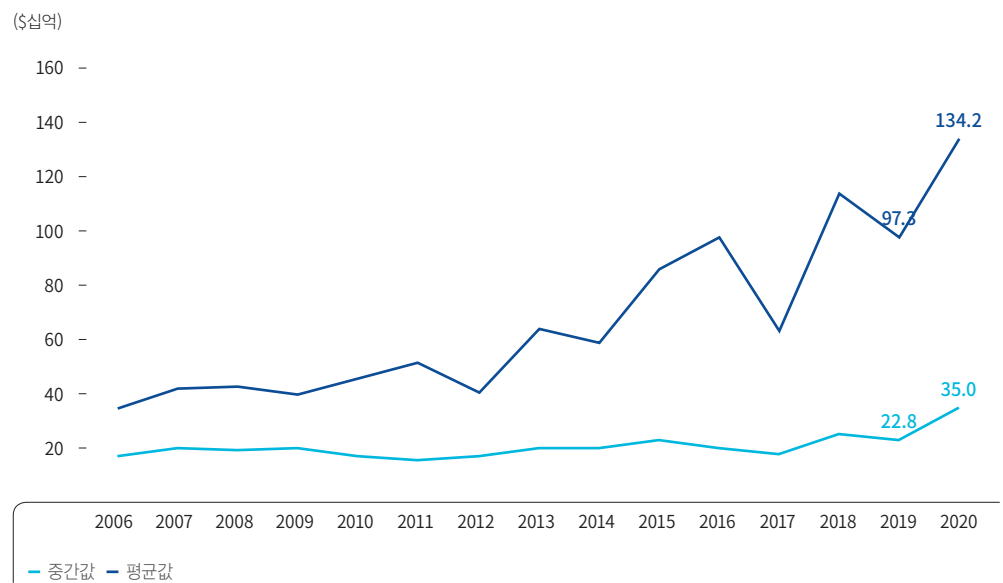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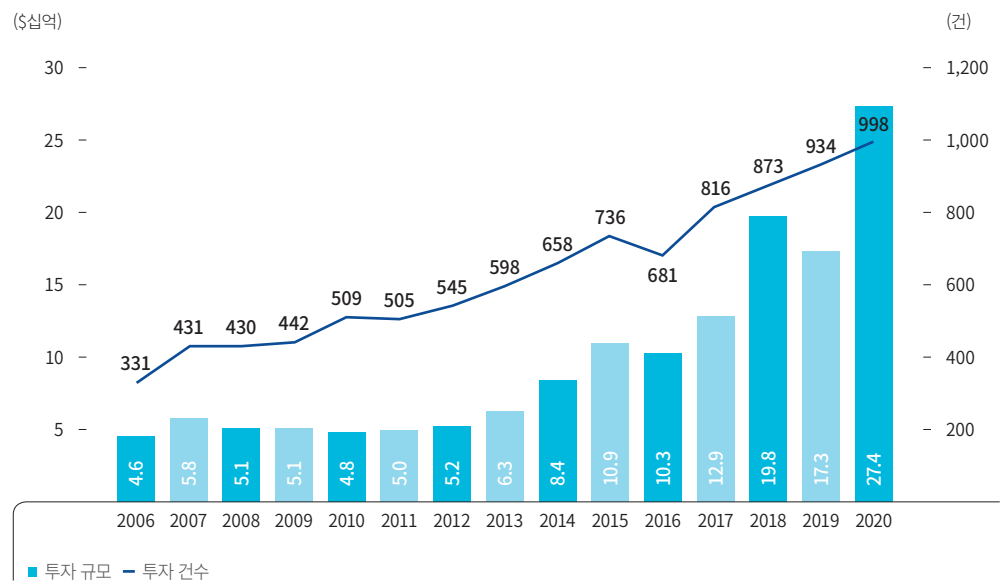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 B2C 테크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기업 기업가치 증감률,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제약/바이오테크 분야에는 998건의 274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금액이 작년 대비 58% 상승하였다. 투자기업 가치는 평균 134.2백만 달러로 B2B/B2C 테크 분야보다 낮으나, 투자 규모는 평균 29.8백만 달러로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투자 시 획득하는 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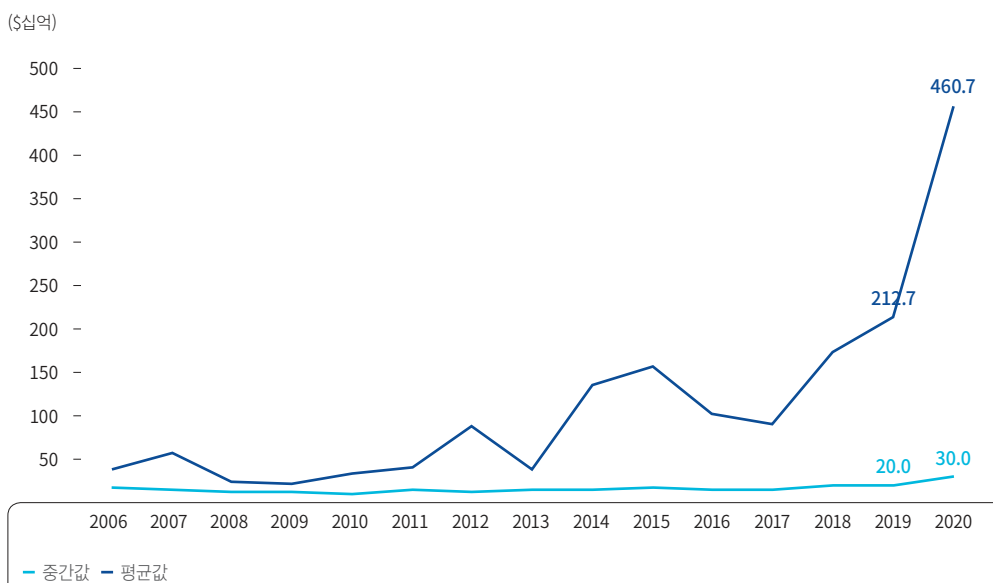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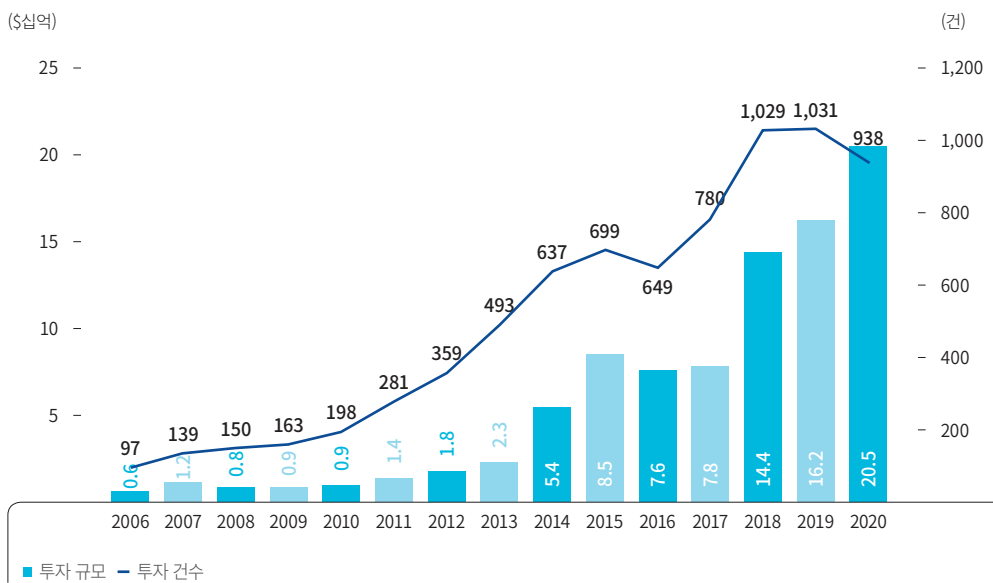
그림 15 미국 VC 제약/바이오테크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핀테크 분야에는 938건의 20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금액이 작년 대비 26%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기업가치는 460.7백만 달러 다른 섹터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년도 미국 핀테크 시장에서 총 80건, 291억 달러 회수가 발생했으며, 대표적으로 Intuit의 71억 달러 규모의 Credit Karma 인수건, Root의 60억 달러 규모의 상장 건이 있었다. 더해서 Robinhood, Klarna, Affirm, SoFi 등 핀테크 대표 유니콘 기업들이 21년도 상장을 예고했다.

그림 16 미국 핀테크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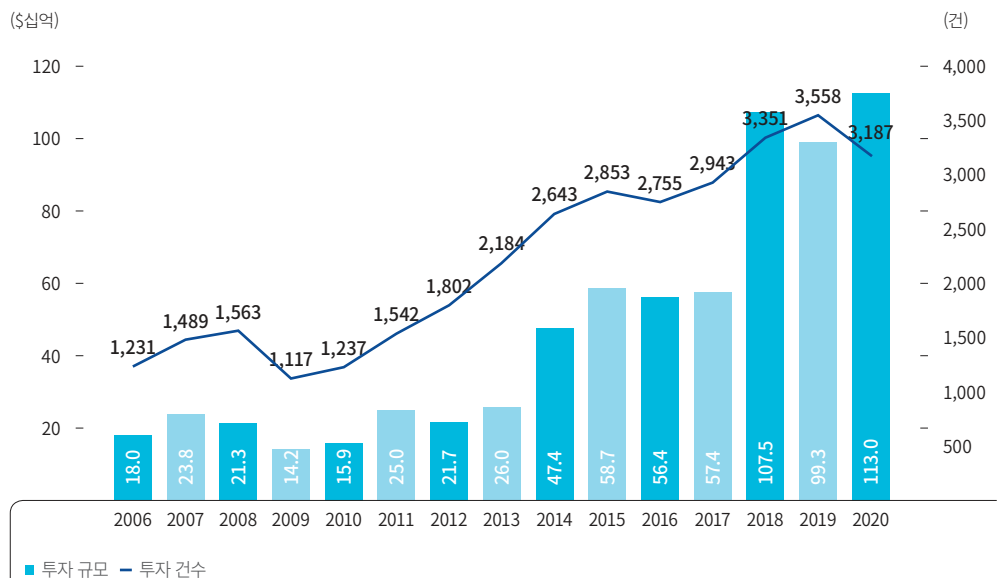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지난 3년간 VC 투자기업 67개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IPO를 통해 회수되었는데, 이는 17년도 이전 10년간 누적 건수보다 많은 건수이다. 이러한 좋은 회수실적은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는 동인이 되었다. 2020년도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총 1,130억 달러 규모의 3,187건의 VC 투자 건에 참여하였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딜에 단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딜을 리딩하거나 독자적으로 딜 투자를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전통적 투자자가 주도하는 딜은 지난 3년간 매년 1500건을 상회하였고, 20년도 참여 건수의 48.7%를 차지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딜 규모의 78.2%가 후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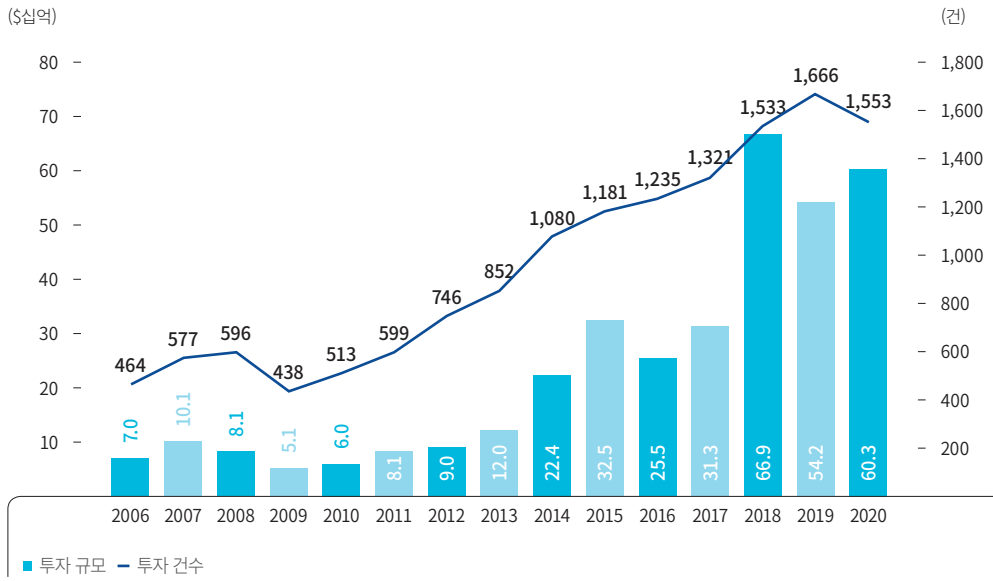
미국 VC 총투자 금액의 47.8%, 투자 건수의 25.7%에 CVC가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19년도에 상장한 Slack, 지난 3분기에 상장한 Snowflake가 VC 펀드를 결성해 상장하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들도 VC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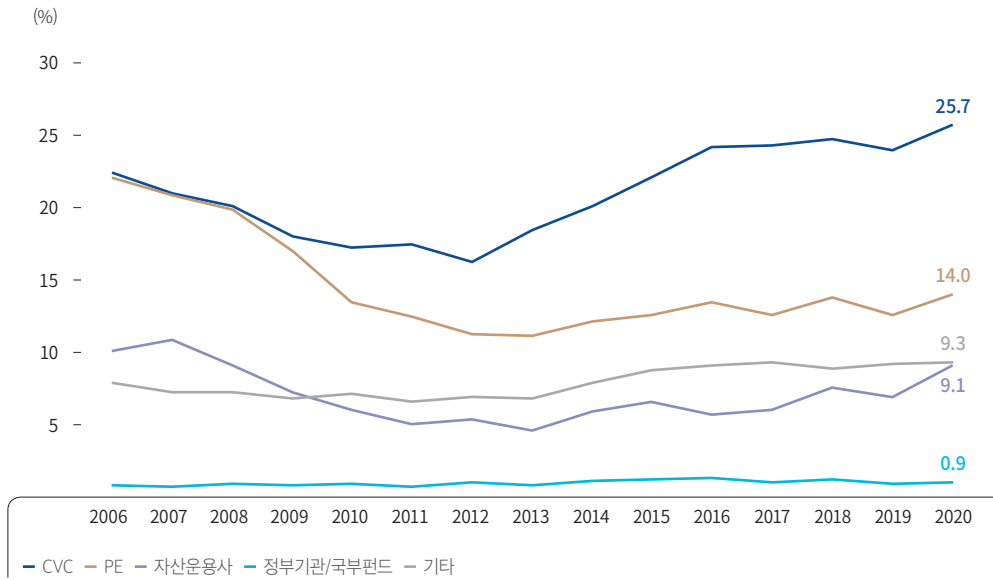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8 비전통적 투자자 리드투자자이거나 단독적으로 편당한 딜 규모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9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회수(Ex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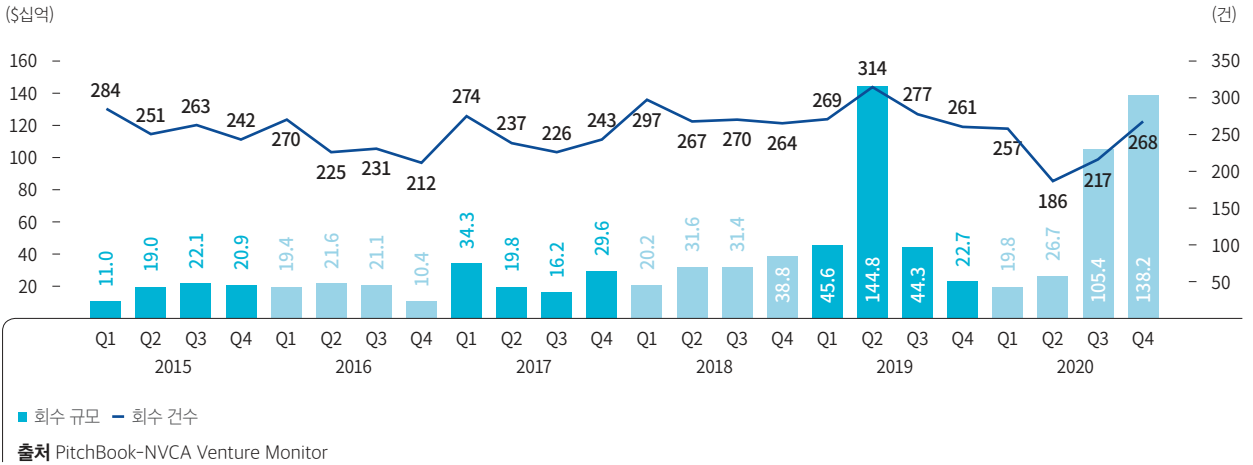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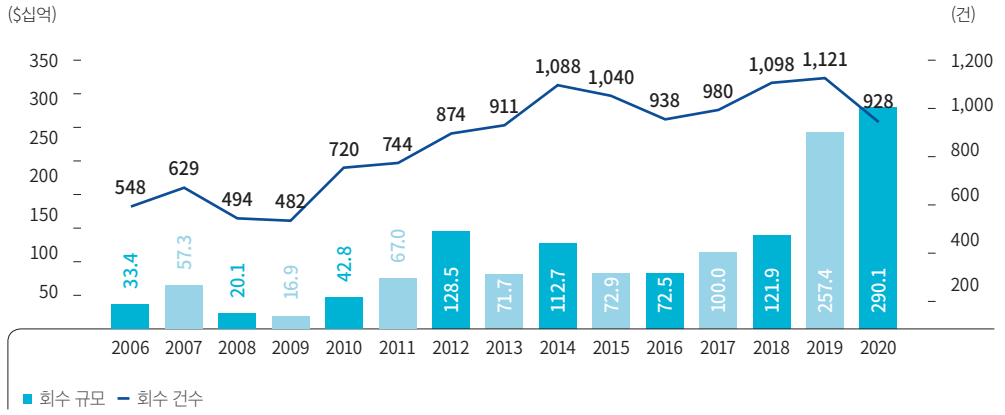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2020년도 VC 회수시장도 결성, 투자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다. 연초 IPO 시장이 많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IPO를 통한 회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Airbnb는 연초 코로나로 인해 계획된 IPO를 미뤘다가 12월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반면 Airbnb와 DoorDash가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80%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기업가치가 각각 약 110조 원, 65조 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9년에도 기업가치 이슈로 상반기 주요 상장 기업들(Uber, WeWork 등)의 주가가 하반기에 지지부진해진 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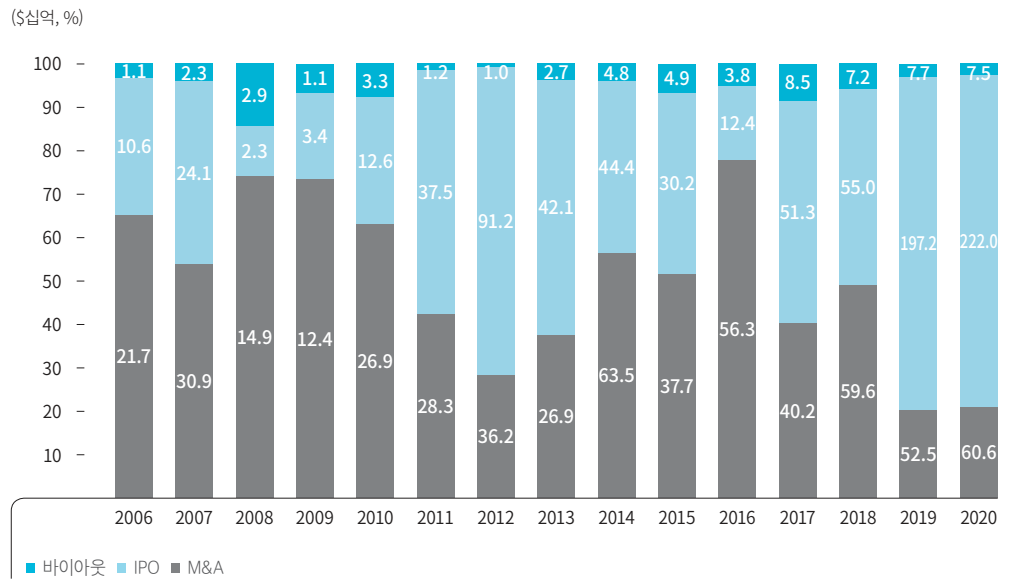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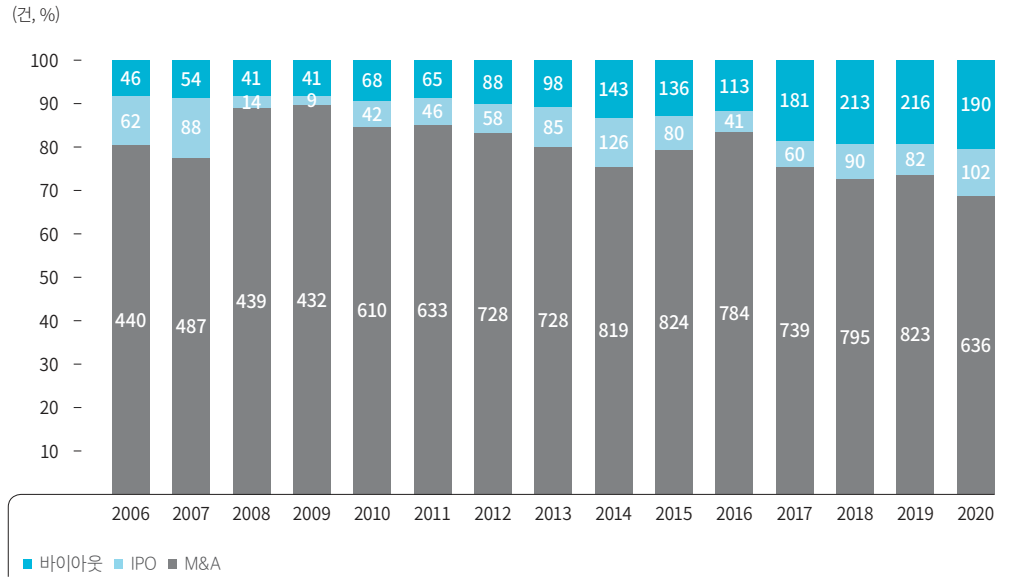
2020년도는 SPAC시장의 한 해였다. 19년 대비 SPAC 상장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해 248건을 기록했고 공모금액은 6.1배 증가한 830.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공모금액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SPAC상장은 기업 입장에서 지배권리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지분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달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고, 합병가액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IPO에 비해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VC 중 SPAC 시장에 참여한 VC들은 대표적으로 Lux Capital, Firstmark, Ribbit Capital 등이 있었다. SPAC은 2년 안에 인수기업을 찾아야하므로, 급격히 늘어난 SPAC으로 인해 21년도는 이들의 유니콘 기업들의 인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직상장의 활용도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Palantir과 Asana가 직상장을 택했으며, 최근에는 직상장을 통한 신주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장 방법이 한층 더 다양해졌다.

그림 20 미국 VC 투자 기업 회수 현황 (상) 연도별 (하) 분기별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2 미국 VC 투자 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0년 온기)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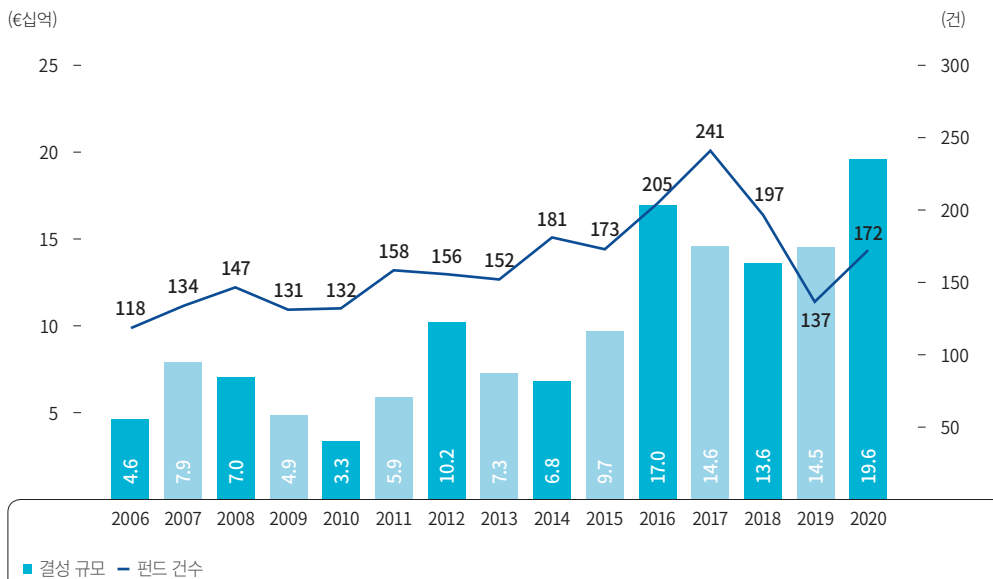
♣ 결성(Fundraising)

2020년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의 결성 규모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결성 규모가 35.2% 증가해 총 196억 유로, 172건의 펀드가 결성되었다. 유럽도 펀드 결성 규모 확대 추세를 이어나가 1억 유로 이상 규모의 펀드가 총 결성금액의 82%를 차지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UK와 아일랜드 지역에서의 펀드 결성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UK와 아일랜드 지역에서의 펀드 결성 규모 전체의 26.0%(51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DACH* 지역이 25.5%(50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이다. 2020년 총 27억 유로의 VC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10억 유로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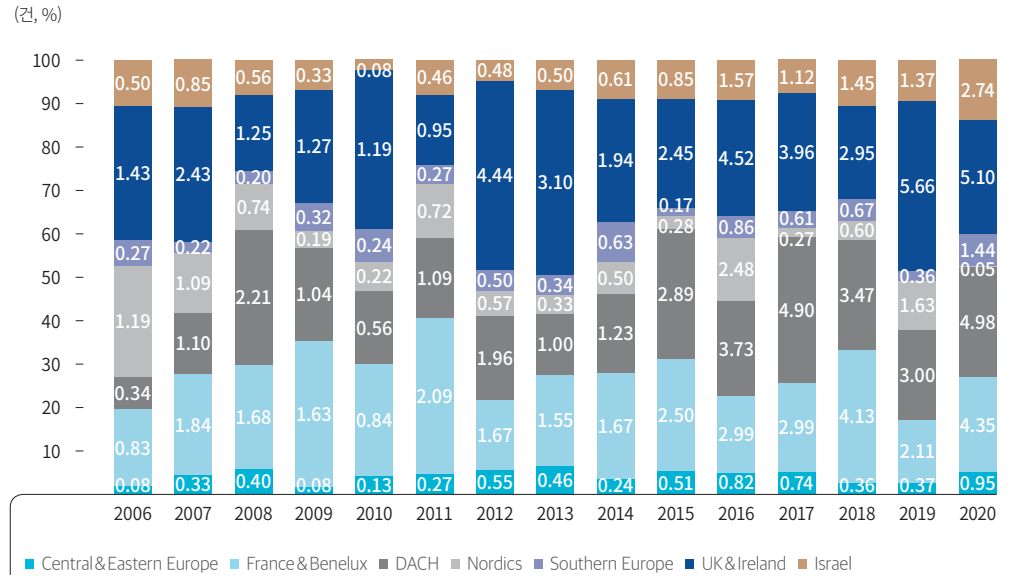
• DACH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2 유럽 VC 펀드 지역별 결성 현황(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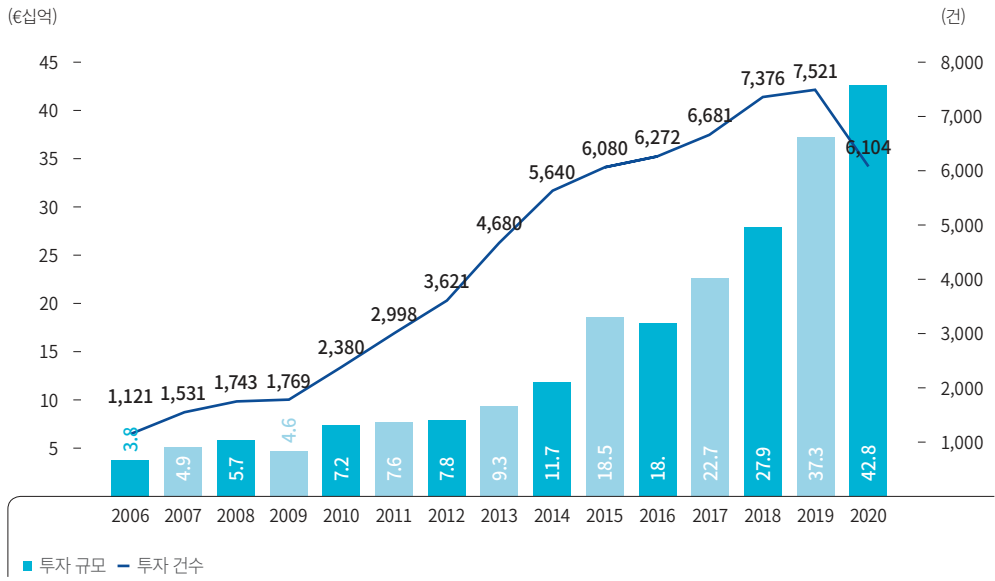
♣ 투자(Deal)

2020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인 428억 유로를 달성했다. 전체 딜 금액 중 59.4%를 차지하는 25백만 유로 이상의 딜이 총 투자 규모의 61.8%를 차지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2020년도 대표적인 대규모 딜은 상장에 성공한 CureVac(NASDAQ: CVAC)의 5억 6천만 유로 유치 건이 있었으며, Klarna, Deliveroo, N26, Revolut 등이 모두 5억 유로 이상의 VC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VC 최초 투자유치 규모는 31억 유로로 총 투자 금액의 7.2%를 차지했다. 유럽 VC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0년 전 30.5%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우려와 달리 코로나의 영향으로 '19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년도 가장 투자가 활발했던 섹터는 소프트웨어로, 총 규모의 33.9%에 해당하는 145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작년 대비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확대된 섹터는 바이오테크/제약 분야로 41.1%가 상승한 54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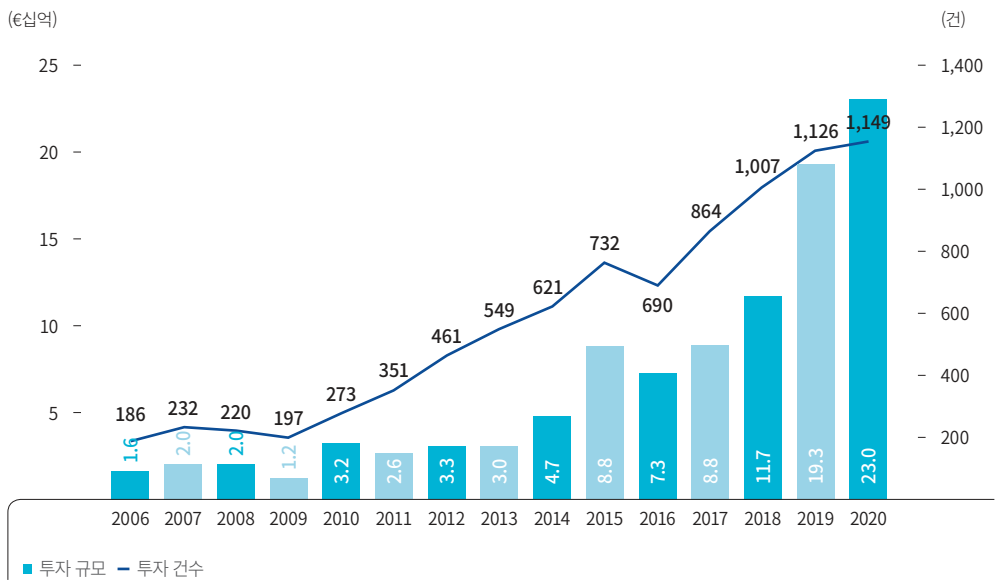
미국 VC는 역대 최고 규모인 230억 유로를 유럽 지역에 투자했다. 2020년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6개 딜 중 5개 딜에 미국 VC가 참여하였다. 미국 VC 투자 유치를 통해 유럽 벤처기업들은 더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미국 VC는 미국 벤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의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크로스보더 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유럽 VC 펀드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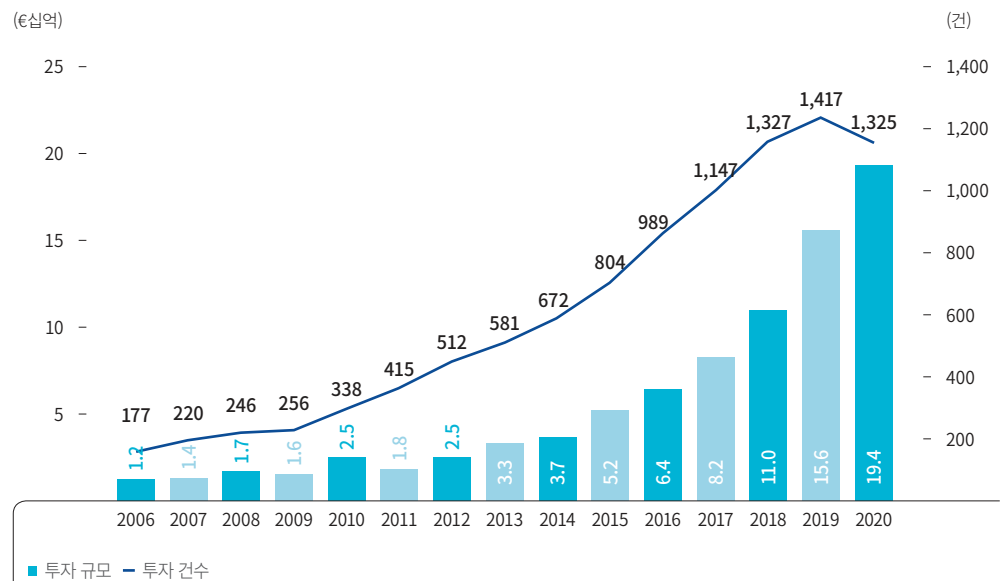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VC의 유럽 투자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유럽 내 CVC 투자 규모는 9년 연속 증가해 작년 대비 24.4% 증가한 194억 유로를 기록했다. 2020년도 대표적인 딜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aaS 분야에서 대표적 강자인 Salesforce의 CVC인 Salesforce Ventures가 참여한 약 1억 유로 규모의 Hopin 딜이 있었다. Hopin은 19년에 설립된 초기기업이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가치가 18억 유로까지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업체 Arrival은 글로벌 운송 업체인 UPS의 CVC인 UPS Ventures가 참여한 1억 유로 딜 유치에 성공했다. Arrival은 과거에 현대와 기아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적도 있었다. UPS는 Arrival 전기자동차를 1만여 대 매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림 5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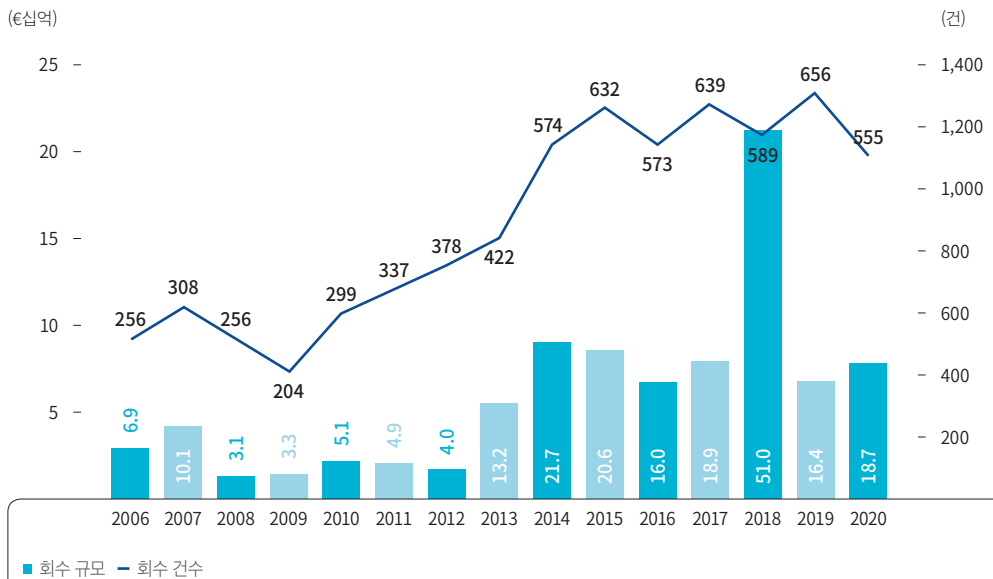
♣ 회수(Exit)

지난 3분기 2020년도 유럽 VC시장의 회수 규모는 12년도 이후 최저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4분기에만 76억 유로가 회수되면서 작년 대비 13.9%가 증가한 186억 유로가 연간 회수되었다.

2020년도에는 유럽의 바이오테크/제약, 헬스케어 섹터가 괄목할 만한 회수 실적을 보였다. 총 규모의 35.9%인 67억 유로가 바이오테크/제약에서 회수되었으며, 대표적인 회수 건으로 CureVac(NASDAQ: CVAC)와 ADC Therapeutics(NYSE:ADCT)의 IPO그리고 Themis Bioscience의 인수 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강점이 있는 DACH지역의 회수 금액은 46억 유로로 지역별 분포 중 24.7% 차지하였다. 헬스케어 섹터도 대규모 IPO건들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Compass Pathways(NASDAQ:CMPS)와 Freeline(NASDAQ: FRLN), Nanox(NASDAQ:NNOX)가 있었다. 반면 코로나 수혜를 받을것이라 예상했던 소프트웨어 회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며, 2개 년도 연속 소프트웨어보다 바이오테크/제약 분야가 더 강세를 보였다.

유럽 시장은 미국 대비 VC 시장 규모가 작아 대규모의 단일 회수 건이 통계 수치에 주는 변동폭이 크다. 지난 5년간 유럽 VC 시장의 투자 규모는 연평균 19% 증가해 미국의 14% 대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의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난 18년도의 Spotify(NYSE : SPOT), Adyen(AMS :ADYEN) 등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회수 건이 발생하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유럽 VC 투자 기업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MoneyTree™ Report, 2020년 4분기)

• MoneyTree™ Report는 PwC와 CB 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투자

2020년 4분기 한 개 분기 중 전 세계적으로 총 4,457건 806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1,656건 총 374억 달러, 아시아 지역 1,651건 총 311억 달러, 유럽 지역 960건 총 104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20년도 1년간 집계된 투자 규모는 16,773건 2,594억 달러로 투자 금액의 51.2%가 북미 지역, 33.6%가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표 1 2020년도 대규모 투자 현황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SpaceX	미국	항공 우주	\$1.9B	Legendary Ventures, Fidelity Investments 등
Manbang Group	중국	ICT서비스-유통·물류	\$1.7B	GGV Capital, Sequoia Capital China
Zuoyebang	중국	ICT서비스-교육	\$1.6B	Tiger Global Mangement, Sequoia Capital China, SoftBank Group
Epic Games	미국	게임	\$1.5B	Lightspeed Venture Partners, T Rowe Price, BlackRock
Ke Holdings	중국	ICT서비스-부동산	\$1.5B	Sequoia Capital China, Tencent Holdings

출처 MoneyTree™ Report

♣ 유니콘

2020년 4분기 중 미국에서는 분기 기준 가장 많은 28개의 신규 유니콘 기업(VC-backed만 포함)이 탄생하였다. 아래의 기업가치는 가장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의 기업가치 기준이며, 현재 기준 기업가치 상위 5개 미국의 유니콘 기업을 보여준다. Airbnb와 DoorDash는 20년도 12월에 상장 성공하며 유니콘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 Instacart, 인터넷 은행 업체 Chime이 20년도에 각각 6억 25백만, 5억 34백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신규 편입되었다.

• 출처 crunchbase data

표 2 ____ 기업가치 상위 5개 미국 유니콘 기업 현황(2020년 4분기)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기업가치	주요 투자자
SpaceX	캘리포니아	항공 우주	\$46.0B	Fidelity Investments, Google
Stripe	캘리포니아	핀테크 - 결제	\$36B	Tiger Global Management
Instacart	캘리포니아	온디맨드	\$18B	General Catalyst, D1 Capital Partners
Epic Games	노스캐롤라이나	게임	\$17B	Lightspeed Venture Partners, KKR, Smash Ventures, Tenecent Holdings
Chime	캘리포니아	핀테크-은행	\$16B	Forerunner Ventures, ICONIQ Capital, Dragoneer Investment Group

출처 MoneyTree™ Report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1년 01월 26일 기준)

2021년 01월 26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31개국에서 배출한 527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1조 6,94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기업은 총 11개로 직전 분기에서 변동하지 않았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쿠팡, 크래프톤(구 블루홀), 옐로모바일, 위메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무신사, 엘앤피코스메틱, GP클럽, 야놀자, 에이프로젠, 쏘카가 있다. 쏘카가 작년 10월 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기업가치를 10억 달러 이상 인정받아 유니콘 리스트에 편입되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총 29개이며, 미국 13개 기업, 중국 8개 기업, 인도와 영국이 각각 2개 기업,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스웨덴에 각각 1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____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254	763.2
중국(홍콩 포함)	126	534.9
인도	27	92.16
영국	26	84.24
독일	15	29.7
한국	11	30.38
브라질	9	20.75
프랑스	7	8.99
이스라엘	7	9.5
인도네시아	5	26.4
스위스	4	5.4
일본	4	5.2
캐나다	3	6.6
네덜란드	3	5
오스트리아	3	9.01
스웨덴	3	16.2
싱가포르	3	19.1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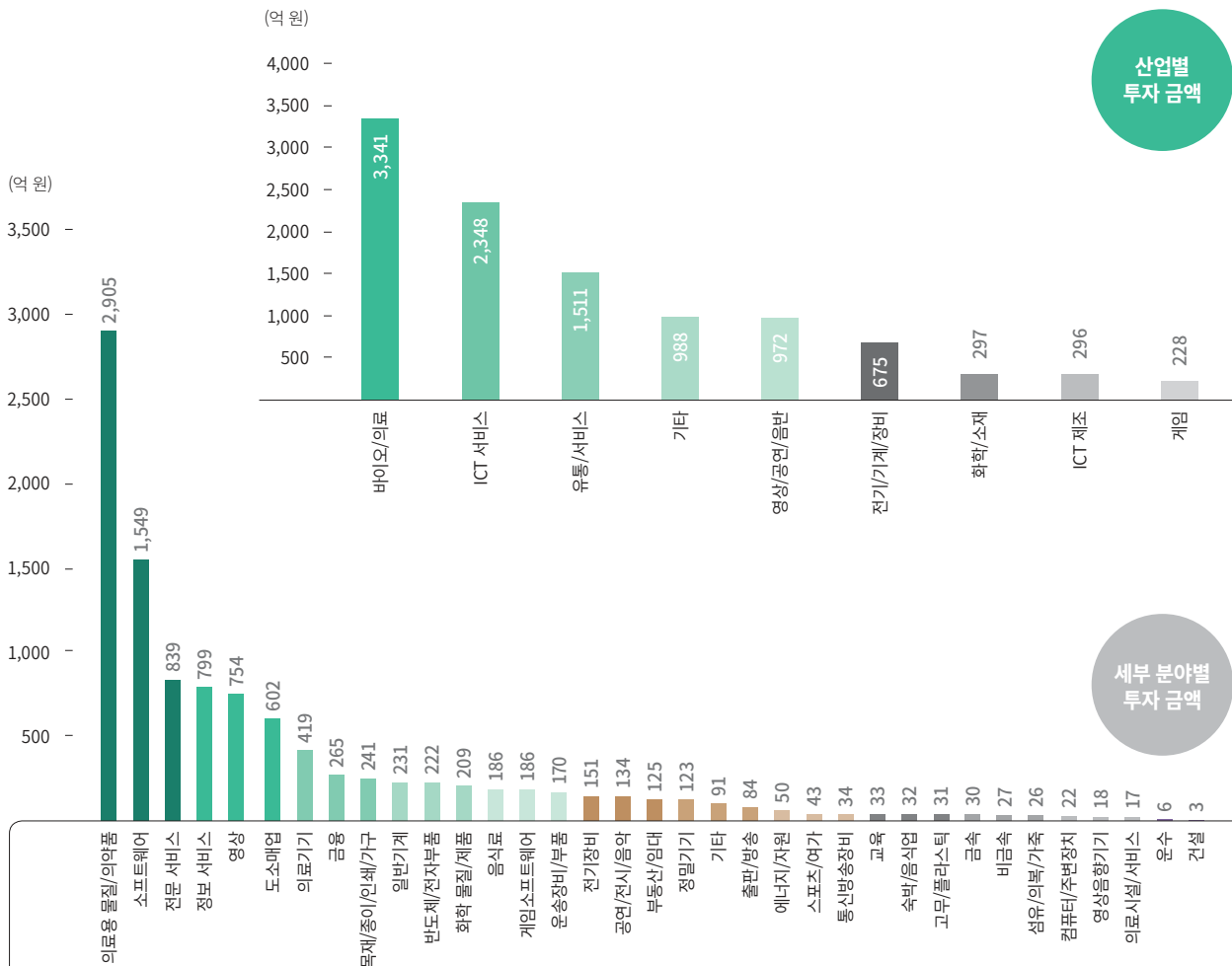
투자 산업 트렌드 /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4분기(10~12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4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0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808개(35% QoQ)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1조 657억 원(27.8% QoQ)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3,341억 원, 61.1% QoQ), ICT 서비스(2,348억 원, 19.3% QoQ), 유통/서비스(1,511억 원, 1.0% QoQ)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투자의 67.6%를 차지하였다. 전분기 대비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972억 원, 51.6% QoQ)의 상승폭이 매우 높았던 반면 전기/기계/장비(675억 원, 94.0% QoQ), ICT제조(296억 원, 56.8% QoQ) 상승폭이 매우 높았던 반면, 화학/소재(297억 원, △42.7%)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1 2020년 4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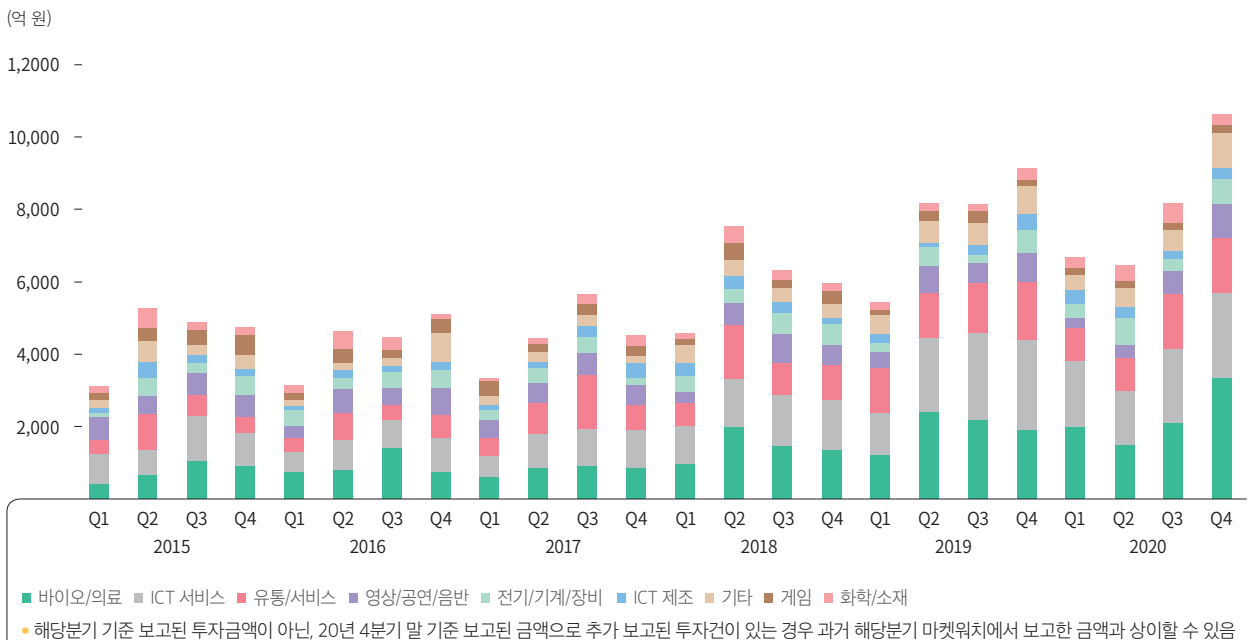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분기 업체당 평균 투자 금액은 13.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0% 감소하였다. 3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 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14건으로 1분기(3건), 2분기(6건), 3분기(10건)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투자기업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10개 분기 연속 ICT서비스 산업으로 241개의 업체에 평균 9.7억 원(△20.1% QoQ)이 투자되었다. 다음으로 유통/서비스 산업에 속한 147개의 업체에 평균 10.3억 원(△37.3% QoQ)이 투자되었으며,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우 119개 업체에 평균 28.1억 원(23.2% QoQ)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지난 5년간 산업별 투자 규모 추이를 분기기준 시계열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가 타 산업 대비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년도 1분기 3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은 52.4%였으나, 20년도 4분기에는 15.3%p증가한 67.7%를 차지하였다.

표 1 2020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분류	투자 금액	투자기업수	평균투자 금액
총합계	10,657	808	13.2
바이오/의료	3,341.3	119	28.1
의료기기	418.9	22	19.0
의료시설/서비스	17.0	2	8.5
의료용물질/의약품	2,905.4	98	29.6
ICT서비스	2,358.5	241	9.7
소프트웨어	1,559.3	172	9.0
정보서비스	799.2	76	10.5
유통/서비스	1,511.4	147	10.3
교육	32.7	7	4.7
도소매업	602.3	65	9.3
숙박/음식업	31.5	4	7.9
운수	5.5	2	2.8
전문서비스	839.4	71	11.8
기타	977.7	70	14.0
건설	3.2	2	1.6
금융	265.3	7	37.9
기타	977.7	70	14.0
목재/종이/인쇄/가구	241.1	4	60.3
부동산/임대	125.0	6	20.8
섬유/의복/가죽	25.7	11	2.3
에너지/자원	50.0	2	25.0
음식료	186.1	19	9.8
영상/공연/음반	971.9	96	10.1
공연/전시/음악	134.2	13	10.3
영상	753.5	75	10.0
출판/방송	84.1	8	10.5
전기/기계/장비	674.8	76	8.9
운송장비/부품	169.6	12	14.1
일반기계	231.1	29	8.0
전기장비	150.9	18	8.4
정밀기기	123.2	18	6.8
화학/소재	296.9	39	7.6
고무/플라스틱	30.8	7	4.4
금속	30.4	9	3.4
비금속	27.2	4	6.8
화학물질/제품	208.6	20	10.4
ICT제조	295.9	38	7.8
반도체/전자부품	222.2	22	10.1
영상음향기기	17.7	5	3.5
컴퓨터/주변장치	21.6	3	7.2
통신방송장비	34.5	8	4.3
게임	228.4	19	12.0
게임소프트웨어	185.6	15	12.4
스포츠/여가	42.8	4	10.7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2 2020년 4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바이오/의료	#마이크로니들, #임상대행, #유전자 치료제, #항체신약, #미생물 기반 바이오 제품, #재활 로봇, #희귀유전질환, #신장신경차단 시스템, #표적 면역 항암제, #박테리아 플랫폼 기술, #자궁경부암 백신,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단백질 HAPLN1, #로봇 수술 지원, #혈중 단백질 다중 정량 분석 기술 기반 진단, #난치성 신경질환#반려동물 질병 관리 시스템, #점안액, #천연의약품, #바이오콜라겐, #수술용 AR 솔루션, #심리상담서비스, #생물비료, #단백질 분해 치료제,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생분해성 체내 이식형 의료제제, #신경계 재생물질 스크리닝 플랫폼, #단백질유도기술 기반 난치성 질환 신약개발, #근감소증 치료제, #암세포 추적 나노물질, #안과용 의리기기, #염증억제제, #비알콜성지방간, #휴대용 초음파 기기 제조, #재활치료용 플랫폼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항암제
ICT서비스	#희귀질환 데이터 관리용 SW 개발 및 판매, #AI 기반 EMR 솔루션 #매출채권 관리 플랫폼, #온니채널(TV, 모바일, PC, OOH) 통합 광고분석 플랫폼, #온라인 패션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맛집 개인화 추천, #AI 음성기술과 영어 회화 기능을 결합한 회화 교육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주식거래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어플리케이션, #HR 데이터 플랫폼, #국제 식자재 B2B 트레이딩 플랫폼, #인도 모바일 #한류 관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홈스크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교육 영상편집툴 #AI기반 의학영상진단 SW개발, #심전도 진단 시계 및 패치, #하드웨어 보안모듈과 소프트웨어 보안모듈을 결합한 융합보안솔루션, #전동 쿼보드 전자제어기, #주식담보대출 P2P 플랫폼, #모바일 개인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실시간 여행가이드 앱, #인증 중고 거래 플랫폼, #가상현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케이팝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전자기반 건강기능식품 추천서비스, 맞춤형 영양제 개발 및 판매, #실시간 약국검색 플랫폼 #스타일링추천플랫폼, #취미기반의 매칭서비스 플랫폼, #AI기반 식단/음식 이미지 분석서비스, #자유주행 및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 #영화 추천 및 영화 감상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기반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중고트럭 거래 플랫폼, #스마트 매장관리 시스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플랫폼, #의원용 전자차트 개발 및 공급, #베트남 거점 패션 커뮤니티 기반 미디어커머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EMS 솔루션, #리걸컨텐츠(하급심 판례 콘텐츠/일반인 이해 가능 콘텐츠), #쇼핑몰 운영대행,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콘텐츠 제품, #AI기반 식재료 배송 플랫폼, #Public-Cloud형 고객지원 서비스, #미국 프로스포츠팀 경기데이터 분석 플랫폼,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방송콘텐츠 제작 및 사업회사 관리, #3D Scanning SW/서비스, #병원 특화 IT 플랫폼 서비스, #의료 영상데이터 자료처리 및 호스팅 서비스, #식자재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복약 관리 솔루션, #중장기 숙박 플랫폼,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말벗서비스, #경험에이 1:1 고인상담 서비스, #AI 클라우드 공간인식 플랫폼, #3차원 영상 진단 솔루션, #블록체인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신발 추천 서비스 및 신발 사이즈 측정 솔루션, #문화콘텐츠 PF 온라인 소셜 투자 중개 플랫폼, #중고차 구둑 서비스, #AI 기반 영상진단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오피니언 보드 SaaS솔루션, #동남아 사회적 신뢰 기반 신용평가, #건강검진 결과지, 문진표 전송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심부름 플랫폼 서비스#변리사 매칭 플랫폼, #IoT기반의 RFID 미들웨어 솔루션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칩 테스트 공정 효율화 소프트웨어, #주차장 안내 서비스, #홀로그램 및 3차원 디스플레이, AR/VR, Contents, #블록체인 정품 인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노인돌봄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팩토리 MES 솔루션, 데이터시각화 저작툴 #기상 정보, #인사 노무 소프트웨어, #차량용디지털기 솔루션, #온라인교육 영상편집툴, #매출채권 및 전자어음 유통화 등의 P2P 플랫폼
유통 서비스	#페플라스틱 재활용, #도시재생 및 문화콘텐츠 기획,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HMR(가정간편식), #개인별 유전체 미생물 분석, 솔루션 제공, #영양아 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언더웨어 정기구독서비스, #샐러드 구둑 판매 플랫폼, #가상 피팅 서비스,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반려동물 간식, #특허정보 온라인 서비스, #라이브클래스, #LED칩솔, #수산물 온라인 판매 및 배송, #명품 커머스 서비스,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온디맨드 화물운송 플랫폼, #비건 버터, #무인 카페, #수산물 HMR 키트, #세탁물 배송, #NCF5필터를 활용한 폐수처리 솔루션, #1인 가구 청소대행 매칭, #레깅스, 스포츠웨어, #온라인 입시컨설팅, #유전자추출 키트, #반려견 피부치료제, #구매대행, #공간기획, #MICE
영상/공연/음반	#국내외 웹소설/웹툰 제작 및 유통, #뽀로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방송프로그램 제작, #영상제작 공모전 플랫폼, #숏폼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플랫폼 사업, #과학 공학 콘텐츠 기반 키트 구둑 서비스, #예술, 전시, 콘서트 관련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중국 전문 크로스보더 MCN 플랫폼, #미술품투자
기타	#건강기능식품, #밀키트, #셀룰로오스나노노성유, #신선식품(샐러드,간편식), #캡슐 머신#여성 위생용품, #인공지능 도시형 스마트팜 및 주변기기, #뉴스이류, #수제맥주, #라이스케이크, #기체여과기#코워킹스페이스, #펫푸드, #지재권 관리, #소방용품, #반려동물 유기농 사료, #폐기물 배출 플랫폼 서비스, #친환경 업사이클 패션잡화, #공유미용실, #식물성 고기
화학/소재	#3D 프린터 광경화성 소재, #수소전기차용 수소저장용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토탈 솔루션, #2차전지 전해질, #이산화티타늄 용액, #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한 세포우집체 개발/생산 서비스, #보일러 및 열병합 발전 설비#향수, 탈취제, #폴더블폰 초박막유리(UTG), #반경화 젤네일 #고체입욕제
전기/기계/장비	#로봇감속기 및 로봇시스템 제조, #공기 베어링 터보 블로워, 수소차용 터보 컴프레서, #초음파 본딩 장비 및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화학물반도체 센서(적외선, 환경센서 등) 개발, #드론, #굴절 수술 지원 로봇시스템 개발 및 판매 등, #7기체 여과기,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위성발사 서비스, #레이더 모듈, #전기버스, #식품용 금속검출기, #ESS, #캠핑용 LED 랜턴, #재활용설비, #AR 글래스용 광학 모듈 개발, #임플란트 치아가공기, #수상드론,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유아용 고급형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로켓 발사체, #수직 이착륙 비행발사체
게임	#영상제작, #PC 및 온라인게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실감형 콘텐츠 제작 플랫폼, #E-스포츠 플랫폼, #스크린골프, #게임 공유 플랫폼
ICT 제조	#키오스크, #스마트 차량제어기, #그래핀 응용 소재 개발, #카메라 모듈, #디퓨저, #유아교육기관 ERP, #필터, #필름형 안테나, #무선마이크 레코딩 시스템, #전기차용 고효율 히터모듈 및 배터리 팩 발열 성능 개선 부품, #SSD 컨트롤러 반도체 칩, #저전력 반도체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